



뉴스잡지 165호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칭하이 무상사



<http://www.thecelestialshop.com>

온라인 천상의 상점이 문을 열다!

이제부터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천상의 상점을 돌아다니며 칭하이 무상사의 최신 출판물과 진귀한 예술 창작품을 집에서 편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천상의 상점을 방문하기만 하면, 가족과 함께 영적인 축복으로 충만한 단순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줄 모든 물품을 마음대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책, DVD, CD 등 칭하이 무상사의 영적 자양분이 담긴 출판물 외에도 다운로드용 MP3파일(오디오)과 MP4파일(비디오)도 구입할 수 있어 운송 과정 없이 세계 어디서나 즉시 스승님의 강연이나 음악을 즐기며 신의 축복에 잠길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천상의 상점에서는 천의, 천상의 보석, 그림, 만세등 같은 우아하고 멋진 창작품들도 전시되어 있으며, 명상 의자, 텐트, 중국 매듭, 스승님의 감로병어가 담긴 행운의 과자 등 아름답고 실용적인 물품도 구입할 수 있다. 천상의 상점은 여러분의 집앞까지 물품을 보내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친척이나 친구들이 있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도 물품을 보내준다.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w.thecelestialshop.com>

영성의 힘이 국가를 번영시킨다

청하이 무상사/ 1993. 3. 6. 싱가포르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325

예로부터 훌륭하고 지혜로운 정부는 항상 국민들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국민 또한 그런 정부를 존중했구요. 이렇게 될 때 한 나라가 평화로워지고 번영하게 됩니다. 우리는 충기나 무력, 또는 그 어떤 것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사랑으로 서로를 존경하기만 하면 나라가 번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현명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며, 국민 또한 지혜로운 통치자를 받아들일 만큼 현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호 협조가 잘 이루어질 때 나라를 세계 열강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도 많은 실수를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명상을 하고 도덕과 자연 법칙을 따름으로써 자신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이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진보하도록 돌봄으로써 매일 국가의 평화와 발전에 더욱더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미 수준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날이 좋아집니다. 수준 높은 삶을 살고 기강이

잘 잡힌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대단히 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지혜롭고 자비로우며 국민을 사랑으로 대하고 국가에 헌신한다면 그 내면은 어느 정도 영적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 지도자들은 높은 행성 출신이라서 내면에 이미 사랑과 지혜를 갖추고 있는데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여기로 내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어느 정도 성인인 셈입니다.

만일 국민이 이 점을 이해하고 모두가 규율을 잘 지키고 도덕성을 갖추어서 나라가 번영하도록 협조한다면, 그들 역시 어느 정도 성인이거나 아주 영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만나기 전이라 해도, 관음법문을 수행하기 전이라 해도 아주 영적인 거지요. 그런 높은 영적 수준에서 수행을 시작하면 다른 나라, 그 어떤 다른 종족보다 더 빨리 진보합니다. 그러므로 돈과 권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성의 힘을 갖추었을 때라야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만족스럽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

CONTENTS

차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65호

출판일자 : 황금시대 3년(2006년) 7월 1일
설립년도 : 1990년 4월 1일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Hsieh Hsin-lin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42) 543-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kpt@yahoo.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간체 및 번체, 영어, 아올락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몽골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앞표지 안 천상의 상점

www.thecelestialshop.com 온라인 천상의 상점이 문을 열다

3 스승님 말씀

영성의 힘이 국가를 번영시킨다

5 다채로운 이벤트

미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한민국

11 행사 메모

12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이탈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일본/ 중국/ 포모사/ 사랑의 반향

27/ 45 스승님의 농담

어디에나 적용되는 반복 학습/ 충격의 만전

28 스승님이 동수들에게 보내신 편지

29 진단지

대안적인 삶/ 전세계 엘리트 채식주의자

31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책

33 전세계 우수 정책 시리즈

일본/ 중국/ 포모사/ 미국/ 보다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며 보다 자연적이고 자비로운 생활 방식을 향해

42/ 69 매체 보도

티베트의 비폭력 운동이 자비의 햇불을 밝히다/
미군이 동아프리카에서 평화를 유지하다/ 한국 『전북 연합신문』/
필리핀 『발리타 뉴스』/ 필리핀 『마닐라 볼터틴』

44 지혜어록

신의 축복으로 국가의 의식이 고양된다/
깨달음은 인류의 발전에 필수적이다

46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신의 사랑을 찾는 것이 곧 모든 행복의 근원을 찾는 것

48 골라 뽑은 수행 문답

점괘를 따르기보다 직관을 따르는 것이 낫다/ 운명은 부지런한 수행과 신의 은총을 통해 바뀔 수 있다/ 모든 일 속에 담긴 신의 뜻을 이해하고 지혜와 자비심을 키우라/ 내면의 자아를 깨달으면 바람처럼 자유로워진다/ 진아를 깨닫고 나면 결코 외롭지 않다

53/ 59 채식 시대

전미(全美) TV 방송망을 통해 첫 방영된 '진정한 영웅' / 채식주의의 전도유망한 미래/ 전세계 엘리트 채식주의자/ 무상주방 웹사이트 개설

58 칭하이 무상사 최신 TV 프로그램

미국

64 동물의 유정 세계

고양이 구도자, 스승님을 만나다/ 종족을 뛰어넘는 사랑의 세계

67 사랑의 실천

대한민국

71 전세계 연락처

74 수행 창작 가곡

천국의 새

뒤표지 영혼의 고향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시집/ DVD

미국 소식

대안적인 삶

줄리 치우/ 산호세 (원문 영어)

[캘리포니아 산호세] ‘대안적인 삶’의 실제적인 면을 홍보하기 위해 산호세 센터 동수들은 현재 둘째 주 토요일마다 채식 요리 강좌를 열고 있다. 세계 6개 지역 요리 전문가인 채식 요리장들이 맛있는 채식 요리법을 지도하는 이 강좌는 보다 자연적이며 건강에 좋은 요리 방법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배울 수 있다.

참가자들은 비입문자에서부터 방법법 수행자, 새로 입문한 동수, 오래된 동수까지 다양하다. 동수들은 채식 생활에 관심 있는 자녀들의 요청으로 이 강좌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몇몇 부모들의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캘리포니아만(灣) 곳곳에서 온 참석자들 중에는 두 시간도 넘는 거리를 운전해 온 이들도 있었다.

최근 한 사저의 집에서 강좌가 한 차례 진행됐는데, 모든 참석자들은 새로 배운 요리법에 열광하며 다음 강좌가 어디서 열릴지 큰 기대를 갖고 물어보았다. 이번 강좌에서 선보인 요리 중 호박과 해바라기씨, 각종 채소와 양념으로 만든 ‘견과 파이’를 맛본 중동 지역 출신의 한 참석자는 계란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도 자연스러운 맛이 살아 있다고 경탄하면서 자기네 고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요리에 항상 계란을 넣는다고 설명했다. 더욱 기쁜 소식은, 이 참석자가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식당의 모든 메뉴에 고기가 들어가



지 않도록 바꾸고자 이 강좌에 참석했다는 점이다.

모든 강좌의 분위기는 항상 따뜻하고 감동적이다. 실습 체계도 계속 향상되고 있어서 횡수를 거듭함에 따라 점점 더 전문화되고 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출석률을 볼 때 오래지 않아 보다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넓은 공공시설을 찾아야 할 것 같다! 동수들은 스승님이 전세계를 고양시키신 덕분에 이렇게 채식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 ✨

수확이 풍성한 비디오 강연회

메이 탄 판, 소피 라페어 (원문 영어)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2006년 2월 25일, 산호세 센터의 동수들은 시내에 새로 들어선 ‘마틴 루터 킹 도서관(Dr. Martin Luther King Jr. Library)’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 시설은 연중무휴로 학생과 교수,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의 지역주민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기에 너무할 데 없는 장소였다. 게다가 보통은 산호세 주립대학과 연관된 기관들만 도서관의 공간 두 칸을 예약할 수 있는데, 우리는 스승님의 안내로 큰 장소를 무료로 예약할 수 있었다.

행사가 열린 날, 세계의 여러 종교적 배경을 가진 방문객들이 참석해서 행사에 문화적 다양성을 더해 주었다. 그들은 스승님의 강연이 상영되는 내내 경청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 채식에 대해 수





용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채식의 개념에 대해서도 상당히 익숙한 듯이 보였다. 앞줄에 앉아 있던 한 여성은 스승님의 말씀에 너무 즐거워하며 자기 뒤에 앉은 다른 방문객들에게 “저분은 참 유머 감각이 뛰어나시군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시간도 넘는 스승님의 강연과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동안 놀랍게도 청중들은 줄곧 집중된 모습으로 경청했으며, 스승님의 유쾌한 유머감각에 즐거워했다.

청중들은 비디오 상영이 끝난 후 질문을 했는데 질문마다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한 존경과 관심,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개발하고자 하는 갈망이 담겨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께서 조금도 힘들이지 않고 강연을 하고 그림을 그리며 글을 쓰고 옷과 보석을 디자인하신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강연회가 끝난 후 24명이 방편법을 배웠고, 그 중 태어날 때부터 채식을 했던 사람을 비롯해 몇 사람은 입문하기를 원했다. 방편법 명상 시간이 끝난 후, 한 여성이 왜 자신에게 빛이 보이지 않는지 물었다. 이에 동수가 내면이 편안했느냐고 묻자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아, 맞아요! 나는 아이가 넷 있는데 잠잘 때도 아까처럼 편안한 적이 없었어요!” 그녀는 이것도 체험의 일종이라는 것을 깨닫고선 즐거워하며 입문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다른 청중은 이렇게 말했다. “이번 행사는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오늘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더 있다면 관심 있는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꼭 추천하겠어요. 전에 많은 정보들로 인해 혼란스러웠는데, 오늘 강연을 듣고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오길 정말 잘했어요!”

이 밖에 스승님의 출판물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어울락인들은 특히 스승님의 시집을 좋아했는데, 예

쁘고 젊은 한 여성은 스승님의 『무자시』를 구입하면서 “이 구판 『무자시』를 구했으니 스승님의 시집 소장 목록이 완벽해지겠어요.”라고 말했다.



마틴 루터 킹 도서관에서 열린 비디오 강연회는 방문객과 동수들 모두에게 아름다운 경험이었으며, 모두들 함께 참여해 이 축복을 나누었기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항상 우리와 같이 해주시는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

연이은 행사와 세미나를 통해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다

다이아나 응우옌/ 휴스턴 (원문 영어)

[텍사스 휴스턴] 인류에 대한 스승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휴스턴 동수들은 매달 정기적인 강연회를 개최하는 외에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있다.

월례 강연회

지역의 한 관음 채식식당에서는 현재 한 달에 한 차례씩 두 시간짜리 대중 비디오 강연회를 열면서 스승님의 가르침과 채식 생활양식을 소개하고 방편법을 지도하고 있다. 참석자들에게는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비롯한 여러 자료들과 스승님의 DVD, ‘진정한 영웅: 왜 채식을 해야 하는가’를 나눠주고 있다. 또한 휴스턴 센터 동수들은



영적인 인도를 갈구하는 재소자들에게도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TV 프로그램

휴스턴 센터는 수년 동안, 공공 TV 채널을 통해 스승님의 강연을 방송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부분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씩 방송되었으며, 현재까지 계속해서 2주에서 4주에 한 번씩 텍사스 휴스턴의 워너 케이블(Warner Cable) 17번과 킹우드 케이블(Kingwood Cable) 98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다.

방송이 끝나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화로 견본책자와 관음법문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고, 그 중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배우러 오고 있으며, 벌써 입문한 사람들도 있다.

라디오 방송

2006년 1월부터는 스승님의 가르침이 휴스턴 TNT(Tieng Nuoc Toi) 어울락 라디오를 통해서도 방송되고 있다. 스승님의 프로그램은 월요일과 토요일 미국 중부 표준시각으로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방송된다.



휴스턴 동수들은 세계인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을 주시는 등 스승님께서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

진정으로 고양된 에너지로 가득 찬 박람회

로스앤젤레스 뉴스그룹 (원문 영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2006년 3월 11일, 상

쾌한 햇살이 비추는 토요일에 로스앤젤레스 센터 동수들은 캘리포니아 뉴포트 비치(Newport Beach) 래디슨 호텔(Radisson Hotel)에서 열린 '전인적 생활 박람회(Holistic Living Expo)'에 참가했다. 이 행사는 자연 요법, 재활, 심신의 건강, 패션과 미용을 주로 선보이는 한편 심신과 영혼의 워크숍, 무료 강연 등 '형이상학 시장'도 열렸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메시지를 가능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비디오 영사기와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하루 종일 스승님의 강연을 상영하는 한편, 견본책자, '대안적인 삶' 전단지, DVD '진정한 영웅', 그리고 스승님의 다른 출판물을 전시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런 '영혼의 양식' 외에도 무료 채식 스프링롤, 만두, 채식 파이, 과자와 생수를 넉넉히 준비해 우리 부스를 끊임없이 찾아오는 박람회 참석자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다.

동수들은 박람회의 에너지가 매우 긍정적이고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최근 스승님께서 지구의 의식을 고양시켰기 때문이다. 많은 방문객들이 우리 부스를 찾아와 스승님에 관한 자료를 얻기도 하고 갖고 가기 편하게 포장된 맛있는 채식 도시락을 가져가기도 했다. 한 방문객은 우리 부스가 굉장히 흡인력이 크다고 말했다. "여러분의 부스는 가장 협조적이고 가장 흥미롭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일 인기가 있어요. 모두들 아주 친절하고 우호적이며 상업적인 목적도 없이 음식과 무료 인쇄물을 '선물' 합니다. 여러분은 물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활 방식을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도 말했다. "이곳이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에너지가 높습니다. 자장이 아주 긍정적이에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먼저 다가서는군요."

카렌(Karen)이라는 상냥한 여성은 말고 있는 '영혼 해석' 부스가 우리의 비디오 스크린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어서 하루 종일 스승님의 강연을 계속해서 볼 수 있었는데, 매우 민감하고 통찰력이 있는 그녀는 스승님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 부스의 에너지는 정말 좋습니다. 모두들 나에



게 친절하게 대해 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었지요. 저는 스승님의 에너지로 하루 종일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으며 매우 헌신적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으니 여러분도 기분 좋은 것입니다.” 주최자도 나중에 동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다시 여러분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참 친절하고 조직적으로 일을 하는군요. 게다가 이 음식은 건강에도 좋고 맛도 훌륭합니다! 여러분의 부스는 이곳에서 제일 인기 있

는 부스 중 하나예요!”

끝으로, 인접한 부스의 또 다른, 사랑이 많은 발레리(Valerie)라는 참가자는 스승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듯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부스에 스승님의 자료와 채식 간식을 놓도록 해주었으며, 동수들이 등록을 늦게 해 행사 동안 공개 강연 시간을 예약하지 못하자 친절하게도 자신에게 할당된 시간의 일부를 내줘서 우리 쪽 사형이 스승님과 채식 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사형의 강연이 끝나자 그녀는 감동한 나머지 사형을 껴안고 말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해요! 여러분과 교류를 갖고 싶어요. 여러분은 친절하고 협조적이며 믿을 만해요. 연령층이 다른데도 함께 일을 잘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해요. 나는 여러분 부스 주위의 진동을 보고 놀랐어요. 진동이 매우 높아서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알아보려고 몰려드는 겁니다.” 그녀는 심지어 쪽지에 직접 글을 적어 동수들에게 주기도 했다. “우리 지구를 평화와 사랑으로써 치유하는 칭하이 스승님과 그 제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박람회 방문객들과 다른 참가자들의 신실함은 동수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을 뿐 아니라 스승님의 크나큰 사랑의 힘을 증명해 주었다. 전인적 생활 박람회에 이토록 강렬한 축복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신 스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뉴질랜드 소식

영성 축제에서 궁극의 법문과 고귀한 생활 방식을 나누다

린다 제임스 사저/ 뉴질랜드 넬슨 (원문 영어)

【넬슨】 뉴질랜드 넬슨 파운더스 파크(Founders Park)에서 2006년 2월 25일과 26일, 연례 영성 축제가 개최되어 다양한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동수들은

공원의 에너지 센터에 부스를 설치하고 TV로 스승님의 강연을 상영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아기를 안고 우리 부스에 찾아온 한 여성은 전에

골든베이에 사는 한 동수로부터 스승님을 소개받았다고 한다.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던 그녀는 스승님의 강연에 빠져들었다. 스승님의 강연을 한동안 시청한 그녀는 내면의 소리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다.

그녀와 남편은 넬슨 지역에서 유명한 음악인으로 서 20년 넘게 채식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곡은 모두 ‘내면의 선율’에서 나온다고 얘기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은 이 내면의 음악을 듣지 못하는지 늘 이상했는데 오늘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서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라고 얘기했다. 그녀는 다음 날 우리 부스를 다시 찾아와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아주 흥미롭게 읽었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반드시 시간을 내어 방문법을 배우러 오겠다고 말했다.

축제 둘째 날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햇살이 강렬하고 더운 가운데, 상쾌한 바닷바람이 불었다. 많은 손님들은 우리 부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스승님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고 견본책자와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받아갔다. 이번 축제는 건강한 채식 생활 방식을 장려하는 스승님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채식을 하고 있다고 선언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었다. 또한 스승님의 가르침을 방송하는 지역 주간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부스에 걸린 스승님의 법상을 알아본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강연을 아주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어떤 이들은 다른 도시에 사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권해 주었다고 하는 것을 듣고 동수들은 그 긍정적인 반향에 놀라워했다.

이번 이틀간 열린 축제에 참여한 동수들은 이 행성의 의식이 이미 고양되었으며 영혼들이 깨어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 방식을 바꾸어 모든 중생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확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더욱 깊이 체감할 수 있었다. 이제 바야흐로 인류가 영원한 해탈로 이끌어 줄 영적인 길을 찾기 시작하는 때가 온 것이다. 



싱가포르 소식

진정한 비전을 보다

싱가포르 뉴스그룹 (원문 영어)

[싱가포르] 싱가포르 동수들은 2월 22일 칭하이데이를 맞이하여 2006년 2월 19일, 센터에서 ‘인생이라는 호텔’을 주제로 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손님들은 아주 이른 시간부터 강연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해, 빈자리 하나 없이 가득 채웠다. 손님들은 강연회





참가 등록을 하면서 ‘대안적인 삶’ 전단지과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받았다.

한 손님은 친구의 소개로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알게 된 후, 큰 관심을 갖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공부했다고 한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스승님의

책과 비디오를 통해 해답을 얻었다. 하루는 스승님의 비디오를 보고 있는데, 스승님께서 그에게 시력을 잃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셨다. 그러자 정말 얼마 후 그는 백내장으로 양쪽 시력을 잃었는데 다행히 성공적인 수술 끝에 시력을 되찾게 되었다. 그는 이 사건이 자신의 업장을 일부 없애 주기 위한 신의 안배로서, 자신의 영적인 맹인 상태와 더불어 육체적 실명 상태가 치유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믿었다. 이제 그는 볼 수 있게

되었다! 인생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 행운아는 방편법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다른 행운아는 1995년도 스승님의 싱가포르 강연에 참석했던 남자였다. 그는 당시 전통 불교와는 다른 스승님의 겉모습에 편견을 갖고 관음법문을 수행하지 않았다. 그러다 몇 년 전 암에 걸려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은 후 운 좋게 살아나게 되었는데, 그는 생명이 위태로웠던 그 시기 동안 마음을 열게 되었고, 수행에 대해 갖고 있던 선입견을 버리게 되었다.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은 그는 영혼의 위안을 구하고자 온갖 수행법을 찾아다녔다. 그는 최근 한 티베트 승려와 상담을 하다가 그에게 필요한 유일한 스승은 오직 칭하이 무상사라는 말을 들었다. 그 순간 스승님의 영상이 마음속에 생생히 떠올랐고, 자신이 스승님을 따르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이번 비디오 강연회에 참석해 방편법을 신청했다.

손님들은 영혼을 고양시키는 스승님의 강연을 경청한 뒤, 동수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풍성한 채식 뷔페를 즐겼다. 행사 동안, 동수들과 진리를 열망하는 구도자들은 서로 건설적이고 조화로운 교감을 나누었다. 이렇게 해서 스승님의 사랑이 동수들과 참석자 모두에게 두루 스며드는 가운데 행사는 기쁨 속에 마무리되었다. ✨

대한민국 소식

부산 해운대에서 깨달음의 열쇠를 함께 나누다

부산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부산】 2006년 2월 26일, 한국 동수들은 유명한 해변 해운대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하는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인구가 450만 명 정도 되는 부산에서 해운대 지역은 국제관계와 문화의 중심지이다.



경험이 풍부한 많은 동수들이 서로 협조하며 행사를 열심히 준비했다. 동수들은 ‘대안적인 삶’과 얼마 후 열릴 ‘행복한 삶의 열쇠’ 강연회 소식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뒷면에 강연회 일정을 인쇄한 전단지를 부



산 시내 거리와 전철역에서 나눠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며 대안적인 생활 방식에 큰 관심을 가졌다. 한 여성은 전단지를 강연회 초대장으로 알고 더 많이 요청하기도 했다.

마침내 강연일이 되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해운대 비치에 있는 행사장을 방문해 스승님의 강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깨달은 삶에 대한 스승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방편법을 신청했다. 그 중에는 평생 채식할 것을 결심하고 입문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채식과 명상 수행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많은 질문을 했다. 늦게 온 사람들을 위해 동수들은 다시 한 번 방편법 전수 시간을 마련했다. 새로운 방편법 수행자들은 내면으로 흡족해하면서 명상법을 배울 자리를 안배해 준 것에 고마워했다.

방문객 중에는 월간 『웰빙 명상』의 편집자도 있었

데 그는 우리 관음법문 명상법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 큰 관심을 보이며 중요한 질문을 몇 가지 하면서 자신의 잡지에 관음법문에 대한 기사를 싣고 싶어 했다. 그래서 동수들은 그의 잡지에 스승님과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기로 약속했다.

강연회가 끝난 뒤, 동수들은 정성스럽게 준비된 250개의 채식 도시락을 모든 참석자들에게 선물했다. 참석자들은 동수들의 사려 깊은 배려에 매우 고마워했다.

강연회를 마치자 어느덧 차가운 봄밤이 다가왔지만 행사에 참여해 스승님의 소중한 깨달음의 메시지를 나누는 사람들의 가슴은 훈훈하기만 했다. 동수들은 강연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해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스승님의 크나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행사 메모

현재 진행 중인 지구의 영성 고양에 발맞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구, 친척들과 함께 와서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나누십시오.

최근의 홍보 활동 일정을 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어)



스승님의 자비의 메시지 ‘대안적인 삶’을 나누기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

동물과 인간 사이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전염병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전세계에 제시하고자 스승님은 직접 ‘대안적인 삶’이란 제목의 친근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전단지를 디자인하셨다. 스승님은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채식의 하고 살생을 멈춤으로써 전세계적 공동위기를 극복하고 무수히 많은 동물 친구들을 구하라고 하신다. 또한 스승님은 모든 동수들에게 전세계 곳곳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라고 당부하셨다. 이에 동수들은 스승님의 사랑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모든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 각국에서 진행된 활동 소식들이다.

이탈리아

로마와 페스카라에 뿌려진 고귀한 메시지

베티나 사저/ 페스카라 (원문 이탈리아어)



[페스카라] 3월 초, 런던 센터에서 사형 네 명과 사저 한 명이 이탈리아에 와서 ‘대안적인 삶’ 전단지 배포를 도와주었다. 우리는 수도인 로마와 페스카라(Pescara)에서 집중적으로 전단지를 나눠주었다.

첫째 날 오후, 우리는 로마의 번잡한 쇼핑 센터로 가서 많은 전단지를 나눠주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매우 호기심이 많고 상냥했으며 전단지의 디자인과 색깔, 인쇄 품질에 매혹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전단지를 받은 후 우리에게 고마워했다. 아이들은 전단지를 받

는 즉시 눈을 빛내며 부모의 소매를 잡아당겨 전단지를 보라고 했으며, 무슨 말인지 알고 싶어하는 그들의 모습이 흥미로웠다.

다음 날은 비가 온다고 했지만 이슬비만 잠깐 내리고는 곧 화창하게 날이 개었다. 우리는 신께 감사드렸다. 왜냐하면 전단지를 배포하려 성 베드로 광장에 갔더니 교황이 나와 군중들을 축복해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광장에는 이탈리아인들과 전세계에서 온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있었다. 교황의 축복이 끝난 후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어와 이탈리아어로 된 전단지를 많이 나눠주었는데, 모두들 친절하게 받아갔다.

우리가 페스카라에 도착한 다음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었다. 페스카라 마을 부근에 사는 한 방법론 수행자가 전단지 배포를 도와주러 왔는데 그녀는 이 기회를 아주 기쁘게 생각하면서 일을 열심히 도왔다. 날씨가 너무 나빠서 주민들이 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와 대학에서 전단지를 배포하기로 했다. 이런 배움의 전당에 가면 분명히 젊은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학교의 행정 담당 직원은 우리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도록 허가

해 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 전단지를 학교에 붙여주기까지 했다. 학생들은 아주 좋은 반응을 보여 주었는데, 이탈리아의 젊은이들은 나이든 세대보다 새로운 생각을 훨씬 더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이날 오후에 우리는 지역 주민들과 부근의 산간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쇼핑몰에 가서 전단지를 나눠주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길을 걸으며 전단지를 읽거나 여럿이서 전단지를 함께 나눠 읽는 광경을 보니 굉장히 기뻐다. 스승님의 지혜와 자비가 이미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

브라질

세상을 고양시키는 스승님의 선물을 나눠주다

고이아니아 뉴스그룹 (원문 포르투갈어)

[고이아니아] 최근 브라질 동수들은 대중들에게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이를 영광스럽게 느꼈다. 동수들은 시장과 전시장, 공원, 직장 주변과 이웃마을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한편 지역의 많은 학교와 도서관, 천연식품점의 허가를 얻어 그곳에 전단지를 붙였다. 이밖에 브라질의 인기 라디오 방송국인 ‘디푸소라 데 고이아니아(Difusora de Goiania)’의 인터뷰 요청을 받아들여 ‘대안적인 삶’에 담긴 채식주의 개념과 보다 자비로운 생활 방식에 대한 메시지를 소개했다.

동수들은 전단지를 배포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전단지를 받아가는 매우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 한 동수는 “마음속의 이 만족감과 행복은 뭐라 설



명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해본 사람만이 이 기분을 알 수 있지요!”라고 말했다. 브라질 동수들은 모두 신이 주신 이 사랑의 선물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



아르헨티나

힘없는 동물들을 돌보는 대안적인 방법

알레한드라 파벨라 사저/ 아르헨티나 멘도사 (원문 스페인어)

[멘도사] 2006년 3월 4일, 아르헨티나의 멘도사 동물 보호센터(Mendoza Animal Protection Center, MAPC)는 멘도사 시에서 제1회 동물 권리 보호 회의를 개최했다. 비정부적, 비영리적인 이 모임은 중생들을 돕고 보호하는 데 뜻을 두고 있으며, 그 목표는 길 거리에 버려진 동물들을 임시 보호하고 그들에게 집을 찾아주는 한편 지방의회가 책임지고 애완동물 질병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동물들의 권리에 대해 각성하도록 촉구하는 데 있다.

모두 채식주의자인 이 세 명의 젊은 여성은 강연 도중 비디오 두 편을 보여주었다. 첫 번째 비디오는 자치단체가 유기견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유기견들을 일산화탄소로 죽이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잔혹한 내용이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두 번째 비디오는 생각과 행동을 바꿈으로써 동물들의 운명을 바꾸려는 산타페의 로사리오(Rosario) 시의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로마스 데 자모라(Lomas de Zamora) 시의회, 알미란테 브라운(Almirante Brown) 시의회 등 자치단체의 노력을 보여주었다. 이들 당국은 전에 동물들을 죽이는 데 사용되던 재정으로 애완동물들의 보호시설을 개선하고 사랑과 책임감을 갖고 동물을 보살피며 이동수술실을 운영해 동물들에게 무료 예방 접종과 백신, 중성화 수술, 그리고 질병 예방에 관한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비디오에서는 애완동물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인쇄심 있게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그들의 애완동물은 풀밭에서 다른 친구들과 뛰어 노는 광경도 보여주었다.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은 청중들의 가슴

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개들과 함께 동물 치료사로 일하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멘도사에서 실행될 새로운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청중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해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다. 토론 결과, 학교에서 강연을 해서 대중들에게 동물들을 죽이지 않는 다른 대안을 제공하고, 각 회원들에게 이웃과 행정 당국에 동물들의 권리에 대해 호소하고 이를 존중해 줄 것을 권하도록 격려했다. 이 밖에 한 발 더 나아가 정부 당국에 안락사를 멈추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동물의 증가를 막는 법안을 제출하는 한편, 수의사와 행정 공무원, 의과 및 수의학과 학생들에게 동물들을 안락사 시키지 말고 실험에도 사용하지 말도록 요청하기로 했으며, 채식과 관련한 토론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 이 용감한 젊은 여성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화학가스로 가득 찬 뜨거운 동물우리에서 개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 (주) 이들은 ‘대안적인 삶’ 전단지들 기쁜 마음으로 받았으며 스승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했다. 이번에 제안된 내용들은 사실 꽤 오래 전부터 내 머릿속에 있었던 것들이었는데, 힘없는 우리 동물 친구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굳게 결심한 이 형제자매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뜻 깊었고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스승님의 사랑이 실천으로 옮겨진 이 강력한 사례를 보여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스승님은 이 용감한 여성들에게 앞으로의 일을 위해 상패와 미화 만 달러를 수여하셨다. ✨



뉴질랜드

남태평양에 고귀한 메시지를 나누다

뉴질랜드 뉴스그룹

[뉴질랜드] 전세계 곳곳에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배포하라는 스승님의 사랑 어린 지시를 받은 후 뉴질랜드 동수들은 즉시 인쇄소와 접촉해 2월에 열린 제7회 오클랜드 연례 제등 축제에서 전단지를 배포했다. 이 축제는 중국인들이 음력설을 경축하기 위해 수천 명이 참가하는 대중적인 행사이다.

동수들은 1만 장의 영문 전단지를 한 번 더 인쇄해서 매일 각지에서 전단지를 나누어주고 있다. 뉴질랜드는 인쇄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포모사 동수들에게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20만 부 인쇄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포모사에서 전단지를 받게 되면 주변의 여러 남태평양 섬나라들을 방문해 스승님의 고귀한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다. ✨



일본

자비로운 음식을 장려해 새로운 채식 시대를 열다

도쿄 뉴스그룹 (원문 일본어)

[일본] 일본에서 ‘대안적인 삶’ 전단지 배포 활동은 신속하고 순조롭게 시작되었는데, 이는 마치 신이 안배해 준 ‘마법의’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듯한 놀라운 경험이었다. 전단지 배포에 관해 의논한 결과 도쿄 센터 동수들은 일본 인구 1억 2천만 명 중 거의 1/3이 밀

집되어 있는 도쿄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군마 센터 동수들이 전단지를 나눠주기로 했다.

매주 일요일 단체명상이 끝난 뒤 도쿄 센터 동수들은 5개 팀으로 나뉘어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다. 또한 주중에는 동수들 각자 직장 부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이웃의 우편함과 채식 식당에도 배포한다. 도쿄 센터 근처의 채식 식당 주인은 매우 열성적으로 협조해 고객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줬으며 또 다른 채식 식당은 예전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으나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비치한 뒤로는 장사가 번창하게 되었다고 했다.

오사카와 규슈, 오카야마, 이와테, 기푸와 고베 등지에 사는 동수들도 자기 고장에서 열심히 전단지를 나누어주고 있다. 도쿄 동수들은 지속적으로 이 활동에 매진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스승님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어주고자 한다.

규슈

도쿄 뉴스그룹 (원문 일본어)

[규슈] 일본 남부 규슈 지방에는 센터가 없지만 이곳에 사는 한 사저의 노력으로 ‘대안적인 삶’에 대한 스승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었다. 2월 중순, 군마 센터에서 한 사저가 구마모토로 와서 이 지역 사저와 함께 사흘간 전단지 배포 활동을 도왔다. 두 사저는 먼저 바다 건너 나가사키 현의 시마바라 시와 사가 시로 가서 쇼핑 센터와 극장, 유흥지 등에서 전단지를 나누어주었는데, 주민들은 대부분 전단지를 받으며 고마움을 표했다.

둘째 날 아침에는 가고시마로 출발했다. 운전을 하던 사저는 며칠간 계속해서 운전을 한 탓에 목적지

에 도착할 무렵에는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을 겪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상태가 훨씬 나아져 그녀는 지나가는 이들에게 전단지를 나누어주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심한 두통과 답답한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더니 마스한 에너지가 솟아나 점점 더 많은 힘이 생겼다. 일을 계속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솟아나 계속해서 전단지를 나누어줄 수 있었으며, 한 시간 뒤에는 완전히 평소 상태로 회복되었다.

동수들은 이어서 미야자키로 향했다.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 속에서도 주민들은 대부분 주머니에 넣었던 손을 꺼내 전단지를 받으며 고마워했다. 미야자키 노베오카 시에서는 각 가정의 우편함에 전단지들을 넣었다. 오이타 현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새벽 두 시가 되어서 사저들은 주민들의 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전단지들을 우편함에 넣었다. 고요한 밤에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 마치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주는 듯한 느낌이었고 매우 기쁘고도 뿌듯했다.

구마모토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러시아워 시간이 되어서 구마모토에 사는 사저는 밤새 잠도 자지 못한 채 그대로 출근을 서둘렀으며, 또 다른 사저는 군마로 돌아갔다. 그들은 전단지 배포 작업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게 해주신 스승님의 축복과 은총에 감사드렸다.

군마

군마 뉴스그룹 (원문 일본어)

[군마] 스승님의 지시를 받고 나서 도쿄 센터와 함께 의논을 한 후, 군마 센터 동수들은 일본 전역을 돌며 채식을 홍보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군마 센터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일본의 47개 현 중 42개 현에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를 전했다.



1. 터미널과 쇼핑 센터, 전시회장 등 사람들이 많은 공공 장소에서 전단지 배부.
2. 집집마다 우편함에 전단지 집어넣기.
3. 신문 보급소를 통해 신문에 전단지를 끼워 넣어 집집마다 배달하기.
4. 지역의 채식 식당과 가게를 운영하는 동수들에게 전단지를 맡겨 손님들에게 나누어주도록 하기.
5. 사람들에게 잘 보이도록 자동차 차체와 화물 등에 포스터 부착하기.
6. 교사나 학교 행정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동수들에게 전단지 내용이 담긴 책받침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도록 하기.
7. 교회 안에 전단지를 비치하고 채식 식당과 카페테리아의 각 테이블에 전단지 놓아두기.
8. 외딴 섬 지역의 100개 초등학교에 스승님의 만화집 『신은 모든 것을 돌보신다』와 함께 ‘대안적인 삶’ 전단지 선물하기.
9.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기.

이러한 홍보 활동은 4미터 눈으로 덮인 추운 북부 지방부터 사방이 푸른 바닷물에 둘러싸인 남쪽의 초록빛 섬 마을까지 3,500km에 이르는 일본 전국에서 이루어졌다. 동수들은 간혹 눈보라와 교통 체증을 겪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 활동을 계속 진행했다. 추위로 손이 곱아도 몇 시간씩 계속해서 전단지를 나눠주었으며,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쉬어도 스승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힘들어하거나 웃음을 잃지 않았다.

동수들은 이 기나긴 여정 동안, 과거에 심한 자연재해나 전쟁을 겪은 지역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언제나처럼 스승님이 모든 것을 완벽히 돌봐주셨기에 우리는 필요한 상황이면 언제든지 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

었다. 한 번은 몇몇 여성들이 동수들과 함께 행인들에게 외치기도 했다. “이 전단지에는 흥미로운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해요!” 어떤 열성적인 자원 봉사자들은 전단지를 가져가 자신이 일하는 자원 봉사 장소에서 나누어주었으며, 택시 기사들은 길을 안내해 주고 우리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우편함에 전단지를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이제부터 두부를 먹어야겠어요!” 하고 외치는 노숙자들도 있었다. 동수들은 외딴 지역들을 이번에 처음으로 방문했지만, 채식 음식을 구하는 데 아무 어려움도 없었다.

예전에 다른 나라에 점령됐던 한 섬에 갔을 때, 동수들은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 내에 섬의 동서남북 모든 지역에 전단지를 배포하기로 했다. 지역 주민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지만 동수들은 스승님의 사랑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 노부부를 만났을 때, 동수들은 스승님이 왜 자신들을 이 섬에 보내셨는지 깨달았다. 이 노부부는 경건하고 엄숙한 모습으로 스승님의 전단지를 주의 깊게 읽은 뒤 전단지의 구호와 동수들이 방문한 시간을 일기장에 기록했다. 동수들은 스승님이 자신들을 이곳으로 보내신 까닭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바람 따라 멀리 두루두루 퍼져나가는 민들레 꽃씨처럼, 군마 센터 동수들이 나누어 준 전단지들은 채식 을 하도록 일깨우는 스승님의 사랑 어린 메시지가 되어 사람들의 가슴속에 심어지게 되었다. 🌻





중국

채식에 대한 정보가 환영받다

중국 동수 (원문 중국어)

[중국] 2006년 음력설이 되기 직전, 중국 동수들은 스승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받아 곧바로 전단지를 나누어주기 시작했다.

동수들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이 메시지를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최선을 다해, 큰 도로와 골목, 버스 정류장, 슈퍼마켓, 식료품점, 주택지, 공원, 병원, 사원, 학교 미용실 등지에서 전단지를 나누어주었다. 전단지를 받은 대중들의 반응은 동수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었다. 사람들은 대부분 전단지의 구호에 큰 관심을 갖고 주저 없이 전단지를 받았으며 다 읽어본 뒤에는 조심스레 주머니 속에 넣어가곤 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영적 의식이 고양되었음을 입증해 주었다. 동수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 신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그저 신을 위한 도구일 뿐, 모든 일은 신이 행하시는 것이다.

동수들은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과정에서 많은 감동적인 일들을 경험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힘을 얻었다. 예를 들어,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한 노인은 전단지를 읽은 뒤 그 내용에 적극 찬성하면서 이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동수들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주차장에 있는 모든 자전거에 전단지를 끼워 두도록 제안했으며 또한 동네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전단지도 요청했다. 한 쪽 팔이 없는 한 장애인우는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이 일을 할 뿐 다른 어떤 이유도 없다는 것을 알고 난

뒤, 큰 감동을 받아 자발적으로 우리와 함께 지나가는 이들에게 전단지를 나누어주었다. 또한 전단지의 내용에 큰 관심을 가진 신문 기자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비로운 생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신문에 실고자 했다.

동수들의 많은 친지와 친구들도 자발적으로 전단지 나누어주는 일에 동참했다. 그 중 한 동수의 친구가 개를 키우는 이웃에게 전단지를 주자 그 이웃은 개를 키우는 다른 친구들에게 주겠다고 전단지를 많이 요청했다고 한다. 한 노인은 전단지를 읽은 후 감동하여 이렇게 말했다. “요즘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들이 있군요.” 또한 어릴 때부터 채식을 해 온 한 여성은 전단지를 읽은 후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동물들의 고통이 느껴져서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그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채식주의를 장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기뻐하면서 자신도 이 전단지를 인쇄해 나누어주겠다고 말했다. 고기 파는 가게의 여주인도 전단지를 읽어보고서 그 내용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선 장사도 내팽개치고 동수들에 전단지를 달라고 한 후 미소 띤 얼굴로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었다. 어떤 대학의 경비원은 우리 동수가 대학 내에 전단지 붙이는 것을 보고 크게 화를 냈지만 내용을 읽어본 뒤에는 바로 태도를 바꾸며 “여기에 전단지를 두시고 가면 제가 나누어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어떤 동수는 길에서 전단지를 나누어주다가 경찰을 보았지만, 그에게는 전단지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그 경찰이 뒤쫓아 와서 “왜 나한테는 안 주는 겁



니까?”라며 전단지를 받아갔다고 한다.

채식을 널리 알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동수들은 몸과 마음이 정화되고 영성이 고양될 뿐 아니라 생각도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일도 보다 정확하고 능

률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을 느꼈다. 동수들 모두 보다 많은 우리 동료들에게 신의 사랑을 전해줄 좋은 도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포모사

채식 생활 방식을 알리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해 만인의 자비심을 일깨우다

포모사 뉴스그룹 종합 보도 (원문 중국어)

타이베이

[타이베이]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에서 사는 타이베이 시민들 간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1월부터 3월까지, 타이베이 동수들은 타이베이를 5개 구역으로 나누고 ‘대단적인 삶’ 전단지를 배포하기 위한 대대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타이베이 국제도서전과 등 축제를 기회로, 동수들은 대량의 행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공익광고, 꼭 읽어보세요’, ‘가족을 사랑하고 건강을 지키세요’, ‘세끼 식사에서 고기를 빼면 복을 받습니다.’, ‘채식을 하면 조류 독감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세 끼를 채식하면 건강과 행복을 만끽하게 됩니다’, ‘사흘 채식은 백만 달러를 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이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건강하세요’ 등의 구호를 고안해 냈다. 지금까지 120만 부의 전단지가 배포되었다.



동수들이 친근한 동물 캐릭터를 이용해 거리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다.

이 밖에 타이베이 센터는 UFO, 네잎 클로버, 하트, 천사의 날개 등 다양한 모양의 앙증맞고 세련된 다목적 마우스패드에 전단지를 인쇄해 넣는 독창적인 발상을 기획하기도 했다. 이 마우스패드를 받은 사람들은 아주 좋아하며 소중히 간직했다. 사람들은 이 귀여운 다목적 마우스패드를 사용할 때마다 신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에게 스승님의 메시지가 오랫동안 남도록 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동수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스승님의 메시지를 알렸는데 많은 이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완화에 있는 룡산사(龍山寺)에서는 사저들이 미소를 띠며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전단지들을 나눠 주었다. 하지만 통역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때마침 정부 수석 통역관 보조를 맡은 적이 있는 예 여사가 나타나 전단지 내용을 일본인들에게 통역해 주었다. 그녀는 자신도 20년째 채식을 하고 있다며 우리의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으며, 매일 우리와 함께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통역을 해주고 싶다고 해서 우리를 감동시켰다. 언주공묘 길목에서는 한 돼지고기 상인이 전단지를 읽은 뒤 동수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채식을 장려하면 나는 곧 망하잖아요?” 이에 동수들이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자 그는 갑자기 크게 깨달은 듯 자신이 오랫동안 심장병을 앓고 있는 것이 고기를 팔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고 말하며, 채식이 건강에 좋으니 한 번 시도해 보겠다고 했다.

전단지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채식이 조류 독감을 예방하는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며 또한 동물을 구하고 자비심을 일깨워주므로 정말 이로움이 많다는 사실에 수긍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되면 주변 사람들과 채식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들이 받은 전단지를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좋은 메시지를 알리고 천연자원을 아낄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자비심에 이미 불이 붙은 이 인연 있는 친구들을 보며 우리는 채식을 널리 알리는 사명

에 동참할 동지가 생긴 것에 기뻐했다.

타이베이 101 빌딩 근처의 상업 지구를 목표로, 동수들은 ‘동물 친구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선달 그믐 저녁식사에는 고기를 없애자’라는 행사를 주최해 대중들에게 동물 친구들을 사랑으로 대하자고 호소했다. 동수들은 등에 표어를 부착한 채식 애완동물들을 데리고 나와 거리를 다니면서 전단지를 배포해 많은 보행자들의 주의를 끌었다. 많은 사람들이 개와 고양이가 육식동물이라 채식을 하고는 살 수 없다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우리 동수들이 기르는 채식하는 모든 ‘충견’과 ‘영특한 고양이’는 털에 윤기가 흐르고 건강하고 생기발랄하며 순하고 푹푹해서 그런 고리타분한 일반 사고 방식을 뒤엎었다. 동수들의 행진은 『자유시보』와 차이나 방송사(CBC) 기자들의 관심을 끌어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많은 외국인들은 행사의 목적을 이해한 뒤 고개를 끄덕이며 동수들을 칭찬했다. “아주 좋아요! 정말 훌륭해요!”

월드와이드 웹이 꽃을 피우는 이 첨단과학 시대에 발맞춰 동수들은 두루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인터넷을 통해 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이를테면 타이베이 센터의 웹사이트에 채식에 대한 정보를 올리고, 친구와 친척들에게 ‘대안적인 삶’



채식 애완동물과 함께 거리에 행진하며 전단지를 나눠주는 타이베이 동수들.



에 대한 내용을 이메일로 전달하거나 주요 웹사이트에 관음법문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URL 주소를 올려놓았다. 이 밖에 유엔과 많은 국가의 공식 웹사이트에는 보통 각 나라 대통령이나 장관들의 이메일 주소가 올려져 있었기 때문에 동수들은 이들 이메일에 '대안적인 삶'의 이미지 파일과 관련 웹사이트 주소를 보냈다.

몇 차례의 전단지 배포 작업을 해본 결과 사람들의 반응이 점점 호의적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많은 열성적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 동수들은 많은 전염병이 이 행성을 위협하고 있는 이 위태로운 시기에 이처럼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는 전단지를 디자인해 주신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도안에 담긴 고귀한 평화의 메시지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속에 담긴 중생에 대한 스승님의 관심과 애정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다. 또한 전단지 뒷면에 인쇄된 '채식 과학자와 노벨상 수상자'에 대한 정보는 대중들에게 채식에 대한 새롭고 긍정적인 시각을 심어주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타오웬

[타오웬] 수일간에 걸쳐, 타오웬 센터는 전단지 66만 부를 인쇄해 개인적으로 배포하는 외에 주말과 휴일에는 인력과 물자를 총동원해 구이산, 린코우, 룡탄 등 30여 부락과 마을에서 대대적인 배포 활동을 전개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기쁘게 전단지를 받으며 동수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생긴 몇가지 따뜻한 일화가 있다. 한 사저의 경우, 집집마다 전단지를 돌리고 있을 때 세 명의 초등학교생이 갑자기 도와주겠다고 나섰는데, 그들은 마치 신이 보낸 천사들



처럼 자전거를 타고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전단지를 배포해 주었다. 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마치 신이 상을 주신 듯 하늘에 커다란 무지개가 떠서 동수들을 놀라고도 기쁘게 해주었다. 모두들 이 뜻 깊은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다.

신주

신주 동수들은 체계를 잡아 신주 곳곳에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우선 지도상에서 전단지를 배포할 지역을 나눈 뒤, 전단지를 배부하고 포스터를 부착할 번잡한 장소를 골라 음력설 기간 동안 사람들로 붐비는 유흥가를 돌며 메시지를 널리 알렸다.

또한 매일 일정을 정해 '대안적인 삶'이 새겨진 선전 차량으로 시내를 다니고, 현수막을 걸고, 걸어다니며 전단지를 배포하고 포스터를 붙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주말에는 전단지를 각 가정에 배포하는 한편 선전 차량으로 거리를 돌며 스승님의 아름다운 음악을 방송하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전단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해서 뛰어난 선전 효과를 거둘 수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가 새겨진 선전 차량이 많은 주목을 받다.

있었다. 활동이 겹치지 않도록 동수들은 배부가 끝난 지역은 지도에 표시해 두었다. 이 밖에 해발 3,500미터의 허후안산(歙歡山)과 포모사에서 가장 외딴 곳에 사는 ‘스마쿠스’ 원주민 부락같이 소외된 지역의 동포들도 잊지 않고 찾아가 전단지를 배포해



말 그대로 ‘발자취’를 남겼다!

동물을 사랑하고 구하자는 스승님의 메시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주 과학공원 캠퍼스까지 전해졌다. 국립과학실험실, 첨단과학기술 회사, 정부기관, 금융기관의 본거지인 이곳의 여러 기관에서 근무하는 많은 외국인 컨설턴트와 기술자들도 영문으로 된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받았다. 동수들은 또한 경비가 삼엄한 많은 주택과 상용 건물들도 방문했는데, 경비원들은 대부분 건물 내에 포스터를 붙이고 전단지를 나눠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으며 그 외 관리요원들은 직접 전단지 배부 작업을 도와주기도 했다.

전단지를 받은 많은 보행자들과 가게 주인들은 주의 깊게 읽으면서 그 내용을 받아들였다. 한 가톨릭 성당의 수녀도 중생에 대한 스승님의 사랑과 채식 보급을 위한 노력에 존경심을 표했다. 한 사저는 요가 강습을 받으러 갈 때 수업 시간에 전단지를 돌리기도 했는데, 요가 강사는 메시지를 읽은 뒤 스승님의 자비심에 깊이 감명 받아 자비를 들여서라도 전단지를 인쇄해 다른 수업 시간에 돌리겠다고 했다.



난토우

[난토우] 난토우 센터는 신문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많은 가정에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음력설 기간 동안 스승님의 자비로운 메시지로 살생이 최소화되길 기대했다.

음력 1월 1일부터, 동수들은 각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었는데, 대부분 전단지의 생동감 넘치는 그림에 흥미를 갖고 기쁘게 전단지를 받아들였다. 음력설 후일이 지난 뒤에는 조를 나누어 미리 점찍어 둔 지역의 각 가정에 전단지를 돌렸다. 주중에는 인구가 밀집된 도심에서 활동하고 주말 낮에는 시골의 외딴 마을에서 전단지를 나눠주었다. 산간 지역은 인구가 흩어져 있는 데다 도시와 소통하기 어려운 곳이 많아서 조금만 부주의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메시지를 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동수들은 정말로 빈틈없이 신경 써야 했다! 길게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을 따라 다니는 동수들의 귀에는 스승님의 메시지가 메아리쳤다. “여러분 나라의 구석구석에 전단지를 배부하세요!”

한 편의점 직원은 전단지에 있는 ‘더 이상 죽이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보고선 곧바로 이렇게 말했다. “음력 초이틀과 16일(주)이면 날이 음율하고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것처럼 느껴지던 것도 이상할 게 없군요.” 그리고 나서 그는 손님들에게 나눠줄 전단지를 많이 달라고 했다. (주: 민간 신앙에 따라 포모사의 많은 사람들이 매월 음력 2일과 16일에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짐승을 제물로 바친다. 그래서 이런 날에는 많은 무고한 동물들이 살육되어 제물이 된다.)

골목에서 전단지를 배부하던 한 사저는 개 한 마

리가 그녀를 향해 사납게 짖어대자 그 개에게 말했다. “난 사람들에게 너를 잡아먹지 말라고 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 그 개는 영특하게도 그녀의 말을 알아듣고는 더 이상 짖지 않고 호법처럼 사저를 따라다니며, 사저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지켜주었다.

또 다른 사저는 하루 동안 전단지 배부 작업을 마친 그날 밤, 꿈에서도 계속 전단지를 나눠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꿈속에서는 상황이 몹시 긴박해서 아무리 빨리 전단지를 나눠주어도 상황에 뒤처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며칠 뒤, “아시아 국가에 이어, 유럽도 조류 독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뉴스를 듣고 그제서야 그녀는 꿈속에서 상황이 긴박했던 까닭을 이해했으며, 스승님께서 왜 우리에게 곳곳에 전단지를 배부하도록 지시하셨는지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타이중] 타이중 동수들은 타이중 시와 타이중 현의 각 지역을 몇 조로 나누어 돌면서 각 가정과 기관, 직장 동료들과 보행자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는 한편 『자유시보』와 『애플 데일리 뉴스』에 4일에 걸쳐 전면광고를 내 전국에 이 중요한 메시지를 알렸다.

전단지를 배부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를 얻었으며 어떤 이들은 동수들에게 연신 고마워하기도 했다. 채식 분식점을 운영하는 한 여사장은 전에는 건강이 나빴는데 채식 식당을 연 이후로 하루 종일 바빠 일하다 보니 정신과 육체의 건강 상태가 예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그녀의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동수들이 친절하고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에게 채식의 이로움을 부드럽게 설명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스승님이 도안하신 이 전단지는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자비로운 생활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주고 있다.

창화

[창화] 창화 센터 동수들은 창화 시와 시저우 꽃 박람회, 그리고 루강에 있는 마주사에서 이 귀중한 메시지를 전했다.

루강 지역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동안 국보급 전통 등 공예 거장인 우둔코우 씨의 아들을 우연히 만

나게 되었는데, 그는 전단지를 받아본 후 채식주의 이념에 매우 수긍하면서 자발적으로 전단지 배포 작업을 도와주었으며 수행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했다. 시저우 꽃 박람회에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왔기 때문에 동수들은 박람회장 정문과 관광버스 주차구역에서 전단지를 배부했다. 어떤 관광 가이드들은 우리를 적극 지지해서 관광객들에게 메시지를 알려주고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했다.

이 밖에 동수들은 창화 시의 여러 기관과 관공서도 방문해 전단지를 나눠주었다. 그 중 여성협회의 직원은 전단지를 받자마자 게시판에 붙이고는 “이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우리도 이걸 인쇄해서 배부해야겠어요.”라고 말했다. 구어성 방송국의 직원들은 채식주의 이념에 동의했을 뿐 아니라 스승님의 견본책자도 요청했다. 이 방송국의 사회자도 동수들의 활동을 크게 반겼으며 우리에게 고개를 숙여 존경심을 표하곤 했다. 마지막으로, 거리를 따라 집집마다 전단지를 배부했는데, 대부분의 가게 주인들은 기쁘고 공손하게 전단지를 받았다.

동수들은 이 의미 깊은 활동을 계속하기로 다짐하면서, 스승님의 메시지를 받은 창화의 모든 시민들이 하루 속히 선량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개발하고 나아가 생활 방식까지 바꿀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했다.





타이난

[타이난] 타이난 센터는 행인들의 눈에 잘 띄는 각 철도역과 병원, 백화점, 길목에 ‘대안적인 삶’ 현수막을 걸어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신 스승님의 자비로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또한 모두들 노란 조끼를 입고 전단지를 배부하며 열성적으로 이 활동에 동참했다.

올해 정월 대보름 등 축제 기간 동안, 전국 등 박람회가 타이난 안팎에서 열려 수많은 인파가 다녀갔다. 타이난 센터 동수들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축제 기간 동안 매일 행사장에 나가 전단지를 배포했다. 또한 행사장 내부의 관광유람선 회사의 한 곳을 빌려 스승님의 만세등을 전시하고 스승님의 강연 DVD를 상영해 박람회장을 영성의 빛으로 밝혔다. 동수들은 전단지를 배부하는 한편 전자키보드 음악 공연과 길거리 춤 공연, 채식 간식을 준비해 많은 관심을 끌어들였다. 외국인들도 스승님의 유창한 영어 강연에 발걸음을 멈추고 DVD를 시청했다.

등 축제 기간 동안, 타이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저스트 재즈’ 색소폰 밴드가 매일 공연을 펼쳤는데, 동수들이 밴드가 공연하는 한쪽에서 전단지를 나눠줄 때면 밴드의 자원봉사자들과 팬들도 우리를 도

우주었으며, 밴드 단장도 동수들이 매일 그곳에서 전단지를 배부하는 것을 환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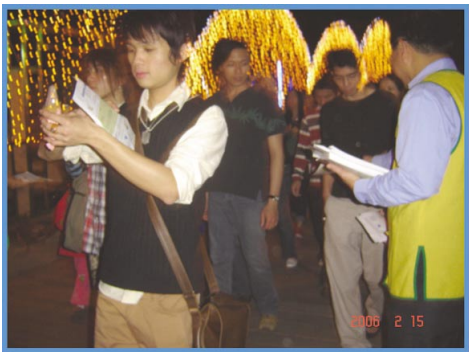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이 이 전단지를 좋아했다. 가끔 외국인 친구들과 마주치기도 했는데, 이들은 영어로 된 전단지를 읽은 후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말했다. “훌륭해요! 정말 고마워요!” 귀여운 네 살짜리 여자아이는 저만치 멀리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선 울상을 하며 불만을 표했다. “왜 어른들은 하나씩 주면서 저는 안 주세요요?” 동수들은 즉시 아이에게 사과를 하고 전단지를 주었다. 전단지를 받은 어린 소녀는 행복하게 웃으며 부모에게 돌아갔다. 이 일은 어린이의 마음이 정말 신의 왕국과 가장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 사저는 매일 밤늦게까지 전단지를 배부하고 귀가해도 피곤한 줄 몰랐고 오히려 활기에 넘쳤는데, 이는 스승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다. 사저는 말했다. “전단지를 한 장 한 장 전해주는 것은 사랑한 조각, 희망 한 조각을 전하는 일이에요. 어쩌면 이 전단지 한 장이 한 개인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동수들은 기쁨으로 충만한 채 이 일을 해나갔으며, 전단지를 건네줄 때마다 “평화롭고 행복하세요”, “행운과 성공을 빕니다”라는 말을 함께 전했고 사람들은 대개 흔쾌히 받아갔다. 이 활동이 동물과 인류가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가오슝

[가오슝] 가오슝 동수들은 최대한 빠르게 서둘러 전단지 8만 부를 제작해 음력설 전에 배포 활동을 진행했다. 백여 명의 동수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며 하루 만에 7만 부가 넘는 전단지를 나눠주었다.

이어서 동수들은 전단지 45만 부와 대형 포스터 800장을 더 빨리 제작했다. 그 중 전단지 17만 부는 신문에 끼워 평둥의 벽지 마을 주민들에게 배부했는데, 평






균 잡아 한 가정에 한 부씩 전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수들은 각자 집 근처에 있는 변화가에서 전단지 배부하거나 가게 밖이나 개인 승용차에 포스터를 붙이기도 했다. 동수들의 일치 단결된 노력으로 45만 부의 전단지가 얼마 안 돼 모두 배부되었다. 이 밖에 포모사 남부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대중적인 신문에 전단지의 내용을 싣기도 했다. 놀랍게도, 『연합일보』와 『민생일보』에서는 우리 전단지의 내용을 지지해 하루 동안 무료로 전국판에 실어주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스승님의 뜻 깊은 메시지와 사랑이 포모사 구석구석까지 빠르게 전파 될 수 있었다. 현재까지 가오슝에서는 전단지 102만 부가 배부되었다. 스승님의 자비로운 뜻을 마음에 새긴 동수들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든 받지 않든 언제나 축복의 말을 건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전단지 내용을 칭찬하며 배부를 도와주기도 했으며 심지어 채식 요리법에 대해 묻는 이들도 있었다. 동수들은 기쁘고 흥분된 마음으로 완전 채식을 하는 황금시대가 도래하길 학수고대했다.

평후

[평후] 평후는 크고 작은 64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군도이다. 동수들은 지역을 시내, 시골, 외딴 지역, 외딴 섬 등 4개 구역으로 나눠 전단지를 배부할 계획을 세웠다. 제1차 배부 활동에서는 17개 마을을 살살이

돌았는데, 친절한 마을 주민들은 이 메시지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많은 여성들이 한 달에 절반 이상 채식을 하고 있어서 동수들은 그들에게 자비심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끝까지 채식을 해야 하며 가족과 아이들도 같이 채식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라고 격려했다. 이에 대부분 여성들이 흔쾌히 수긍했다. 이 성공적인 경험에 힘을 얻은 동수들은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두 번째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대중 매체 광고 쪽으로는 라디오와 신문에 채식과 건강, 위대한 채식주의자, 국내의 채식 연예인, 채식 요리법 등등의 주제를 게재할 계획이며 평후 곳곳에 채식 이념이 전해지기를 희망한다. 



사랑의 반향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신의 축복을 나누다

조이 위즈덤 사저/ 미국 뉴저지 (원문 영어)

2006년 3월 4일 일요일, 나는 여동생, 조카와 함께 어머니를 배웅하러 JFK 공항에 나갔다. 날씨도 아주 좋았는데, 나는 이날 처음으로 뉴욕에서 운전을 했



다. 뉴욕은 교통 체증이 심한 것으로 악명 높지만, 이 날은 웬일인지 놀라울 정도로 차가 잘 빠졌다.


우리는 예정보다 한 시간 가량 일찍 공항에 도착했는데 어머니가 타실 비행기가 한 시간 가량 연착되어서 두세 시간 정도 기다리게 되었다. 공항에서 세계 각지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승객들은 한가로워 보였다. 우리 가족은 이것이 스승님의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나는 전날 밤잠을 설친 데다 직장 내 몇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했지만, 전단지를 나눠주기 시작하자마자 아주 행복해지고 활력이 충만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영혼을 고양시키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나를 감싸는 게 느껴졌다. 어머니도 내 얼굴이 아주 밝아지는 것을 눈치채셨다. 우리는 스승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시면서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을 축복하신

다는 것을 알았다. 여섯 살짜리 조카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영어로 우리를 도와주었다. “건강하게 사세요!”

두 시간도 안 돼서 수백 장의 전단지가동이 났다. 대기실에 있던 직원들은 적어도 한 장씩 전단지를 받았으며 어떤 이들은 동료에게 전해 줄 요량으로 몇 부 더 받아갔다. 신문 가판대와 커피숍도 대중들과 나눌 수 있도록 전단지를 두고 가라고 환영했다.

전단지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매우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고마워했다.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서 내용을 읽어보았고, 몇몇 사람들은 서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탑승하는 곳과 도착하는 곳 양쪽에서 전단지를 나눠주었기 때문에 두 군데서 전단지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가 떠날 때 즈음에는 거의 모든 이들이 손에 전단지를 들고 있었는데, 공항 터미널 전체에 작은 자비의 깃발들이 나비 떼처럼 날아다니는 듯했다. ✨

스승님의 농담 

어디에나 적용되는 반복 학습

청하이 무상사/ 2003. 2. 4.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DVD No. 754

판매회사의 사장이 직원에게 말했어요. “고객에게 기억시키는 주된 방법은 반복, 반복 반복이야! 그것이 열쇠야! 제품을 팔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고객에게 되풀이해서 읊어야 하네. 계속 반복해서 사람들 머릿속에 주입시키게.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자네에게 넌 더리를 내고 반감을 갖는 한이 있어도,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걸 잊어선 안 돼. 그것만이 우리 제품을 팔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러자 직원이 말했지요. “예, 알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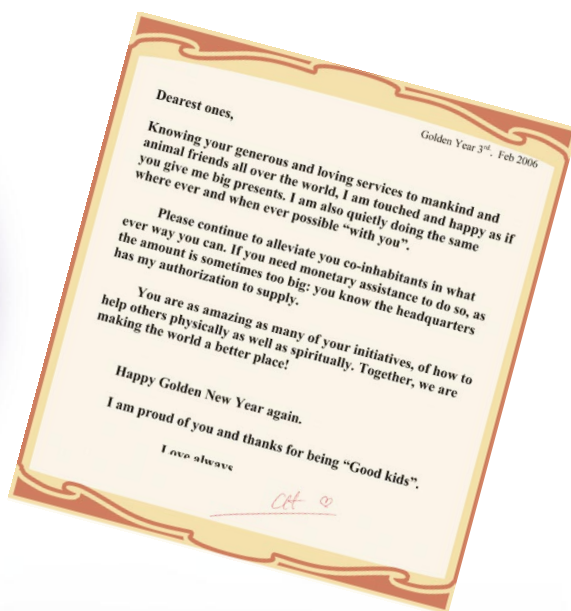
“좋아, 그런데 자네가 나를 보러 온 까닭이 뭐였지?” 사장이 묻자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봉급 인상, 봉급 인상, 봉급 인상해 주십시오!” ✨



스승님이 동수들에게 보내신 편지

최근 전세계적으로 많은 자연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동수들은 인도주의적 관심을 갖고 재빠르게 재해 지역에 도착해 이재민들에게 물질적 원조와 정신적 위안을 제공했다. 특히 2006년 1월부터는 스승님의 자비로운 지시에 따라 전세계 센터들이 세계인들이 채식 생활을 선택해 동물 친구들의 고통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 스승님의 ‘대안적인 삶’ 메시지를 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승님은 편지를 통해 동수들의 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정신에 감사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셨다. 이 편지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세계의 인류와 동물 친구들을 위한 여러분의 너그럽고 사랑 넘치는 봉사에 대해 알고 나서 마치 여러분에게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감동스럽고 행복합니다. 나 또한 가능한 한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과 함께” 조용히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동료 생명체들의 고통을 줄이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 때로는 큰 돈이 들 때도 있으니 그 일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본부에서 지원해주도록 내가 승인해 두었습니다.

주도적으로 많은 일들을 시작해서 물질적, 영적으로 남들을 돕고 있는 여러분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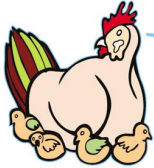
행복한 황금 새해를 맞이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훌륭한 아이들’이 되어 주어 고맙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CH ♡

대안적인 삶 Alternative Living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음식을 바꾸세요



더 이상 죽이지 마세요
건강해지고 사랑을 베푸세요

우리 생명을
구해 주세요!
여러분을 사랑해요



영양 많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음식의 예:

음식	단백질 비율(중량에 따른 백분율)
두부 (콩으로 제조)	16 %
글루텐 (밀가루로 제조)	70 %
옥수수	13 %
쌀	8.6 %
콩, 강낭콩, chickpea(병아리콩), 렌즈콩(lentil) 등	10 - 35 %
아몬드, 호두, 캐슈너트, 개암(헤이즐넛), 잣 등	14 - 30 %
호박씨, 참깨, 해바라기씨 등	18 - 24 %

▪ 과일과 야채에는 풍부한 비타민, 미네랄, 산화방지 성분이 있으며, 건강과 장수에 좋은 고품질의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 농축 종합 비타민제 역시 비타민, 미네랄, 산화방지 성분의 훌륭한 원천입니다.

- 조류독감으로 인한 전세계적 유행병의 실질적인 위협을 줄이고,
- 광우병 및 돼지 질병(PMWS 증후군) 등의 위협을 없애고,
- 우리의 사랑스러운 가축들, 해양 동물들, 조류 친구들 수십억 마리를 끔찍하게 계속 죽이는 것을 멈추기 위해

이제는 채식으로 바꾸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하고
경제적이고
생태계를 보호하며
자비롭고
승고하며
평화롭습니다



오래
사세요!

고맙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아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대안적인 삶 홈페이지(www.GodsDirectContact.or.kr/al), E-Mail: AL@GodsDirectContact.or.kr
한국 채식연합(www.vege.or.kr), 한국 채식인협회(www.vegetus.or.kr)

전세계 엘리트 채식주의자

철학자, 영적 지도자

제14대 달라이 라마(Dalai Lama, 티베트 영적 지도자), 파라마한사 요가난다(Paramahansa Yogananda, 인도 영적 스승), 예수 그리스도와 초창기 기독교인, 공자(중국 철학자), 석가모니불, 노자(중국 철학자), 성 프란체스코(St. Francis of Assisi, 이탈리아 기독교 성인), 틱낫한(Thich Nhat Hanh, 어울락 스님/ 작가), 마하리쉬 마헤쉬(Maharishi Mahesh, 인도 작가, 철학자, 초월명상 지도자), 조로아스터(Zoroaster, 이란 조로아스터교 창시자) ... 등등

작가, 예술가,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이탈리아 화가), 에머슨(Ralph Waldo Emerson, 미국 작가, 시인, 철학자), 버나드 쇼(Geroge Bernard Shaw, 아일랜드 작가), 존 로빈슨(John Robbins,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Mark Twain, 미국 작가), 알버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 독일 철학자, 의사, 음악가), 플루타르크(Plutarch, 고대 그리스 작가), 볼테르(Voltaire, 프랑스 작가) ... 등등

과학자, 발명가, 기술자

다윈(Charles Darwin, 영국 자연주의자),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독일 과학자), 에디슨(Thomas Edison, 미국 과학자, 발명가), 아이작 뉴턴 경(Sir Isaac Newton, 영국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Nikola Tesla, 크로아티아 과학자/ 발명가), 헨리 포드(Henry Ford, 미국 포드 자동차사 설립자) ... 등등

정치가, 사회운동가

수잔 안소니(Susan B. Anthony,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 인도 인권 지도자),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부부(미국 인권 운동 지도자), 야네즈 드르노프세크(Janez Drnovsek, 슬로베니아 대통령), 압둘 칼람 박사(Dr. APJ Abdul Kalam, 인도 대통령),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인도 수상), 데니스 쿠치니치(Dennis J. Kucinich, 미국 국회의원) ... 등등

배우, 영화 및 TV 스타

파멜라 앤더슨(Pamela Anderson, 미국 여배우), 애슐리 주드(Ashley Judd, 미국 여배우), 브리짓 바르도(Brigitte Bardot, 프랑스 여배우), 존 클리즈(John Cleese, 영국 배우), 데이비드 듀코브니(David Duchovny, 미국 배우), 대니 드비토(Danny Devito, 미국 배우), 카메론 디아즈(Cameron Diaz, 미국 여배우), 리처드 기어(Richard Gere, 미국 배우), 대릴 한나(Daryl Hannah, 미국 여배우), 더스틴 호프만(Dustin Hoffman, 미국 배우), 케이티 홀즈(Katie Holmes, 미국 여배우), 스티브 마틴(Steve Martin, 미국 배우), 데미 무어(Demi Moore, 미국 여배우), 이안 맥켈런(Ian McKellen, 영국 배우), 토비 맥과이어(Tobey Maguire, 미국 배우), 폴 뉴먼(Paul Newman, 미국 배우), 브래드 피트(Brad Pitt, 미국 배우), 기네스 펠트로(Gwyneth Paltrow, 미국 여배우), 조아킨 피닉스(Joaquin Phoenix, 미국 배우), 스티븐 시갈(Steven Seagal, 미국 배우), 브룩 쉴즈(Brooke Shields, 미국 모델/ 여배우), 제리 사인펠트(Jerry Seinfeld, 미국 배우), 나오미 왓츠(Naomi Watts, 미국 여배우), 케이트 윈슬렛(Kate Winslet, 영국 여배우), 리즈 위더스푼(Reese Witherspoon, 미국 여배우) ... 등등

팝스타 및 음악인

조안 바에즈(Joan Baez, 미국 포크가수), 조지 해리슨(George Harrison, 영국 음악인. 비틀즈 멤버), 폴 매카트니(Paul McCartney, 영국 음악인. 비틀즈 멤버), 링고 스타(Ringo Starr, 영국 음악인. 비틀즈 멤버), 밥 딜런(Bob Dylan, 미국 음악인),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 미국 팝스타), 모리세이(Morrissey, 영국 가수), 올리비아 뉴튼 존(Olivia Newton John, 영국계 호주 가수), 시네드 오코너(Sinead O' Connor, 아일랜드 가수), 핑크(Pink, 미국 가수), 프린스(Prince, 미국 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Justin Timberlake, 미국 팝가수), 티나 터너(Tina Turner, 미국 팝스타), 샬리사 트웨인(Shania Twain, 캐나다 가수), 바네사 윌리엄스(Vanessa Williams, 미국 팝가수) ... 등등

스포츠 인사

헝크 아론(Hank Aaron, 미국 야구 홈런왕), 빌리 진 킹(Billie Jean King, 미국 테니스 챔피언), 빌 월턴(Bill Walton, 미국 농구 선수), 칼 루이스(Carl Lewis, 미국 육상 스타. 올림픽 9관왕), 에드윈 모세스(Edwin C. Moses, 미국 육상 스타. 올림픽 2관왕), 엘레나 발렌지크(Elena Walendzik, 독일 복싱 챔피언), 알렉산더 다르가츠(Alexander Dargatz, 독일 운동선수, 보디빌딩 세계 챔피언, 의사) ... 등등

모델

크리스티 브링클리(Christie Brinkley, 미국 슈퍼모델), 크리스티 킬링턴(Christie Turlington, 미국 슈퍼모델) ... 등등

명단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http://AL.Godsdirectcontact.org.tw/vg-vip>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

청하이 무상사/ 1995. 10. 15.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502

중국 송나라 때 ‘혜양(惠肱)’이란 선생이 있었는데, 그는 수행을 해서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송나라 강왕(宋康王)을 알현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를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선 곧바로 물었습니다. “짐은 무예가 뛰어나고 용감한 자만 좋아할 뿐 인의(仁義)를 논하는 자는 싫어한다. 내게 해줄 조언이 있느냐?”

이렇게 송 강왕이 무예만 좋아하고 인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다고 하니 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왕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있다면, 옛날 사람들은 인내심이 많았나 봅니다. 나라면 그런 사람은 만나러 가지도 않을 텐데, 여러분은 어찌겠어요? 나라면 안 만날 거예요! (스승님 웃음) 난 좀 인내심이 없어요. 어쨌든 그래도 왕은 예의를 지키며 물었습니다. “내게 어떤 조언을 하려는가?” 하고요. 왕에게 『즉각 깨닫는 열쇠』 제1권을 선물해야겠어요. (대중 웃음)

그러자 혜양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소인에겐 신통이 하나 있는데, 이 힘이 있으면 적이 아무리

용감해도 그의 칼이 폐하의 몸을 찌를 수 없고, 적이 아무리 용맹해도 폐하를 때려눕힐 수 없습니다. 이런 신통이 마음에 드시옵니까?” 그러자 왕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암! 맘에 들고말고! 과인은 그런 신통을 아주 좋아하노라!”

혜양은 계속해서 왕을 유혹했어요. “설령 누군가가 칼로 찌르거나 때리지는 못한다 해도 이견 모욕인 셈이니 이 정도로는 좋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승님 논평: 혜양은 우선 작은 신통으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뒤 더 높은 이치를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소인에겐 또 다른 신통이 있는데, 이 신통이 있으면 적이 아무리 용감해도 폐하를 뵈기만 하면 감히 칼로 찌르려거나 상처를 입히려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더 좋사옵니다. 폐하께서는 마음에 드시옵니까?” 송왕은 당연히 마음에 들어했지요.

혜양은 또 말했습니다. “설령 그자들이 폐하를 다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폐하를 해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찌면 그러고 싶긴 해도 엄두를 못 내는 것뿐일 수도 있지요. 소인





에게 또 다른 신통이 하나 있는데, 이것으로는 사람들이 폐하를 다치게 할 생각은커녕 살해할 마음도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폐하께서 이런 신통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은 좋아하나요? 아이고, 다들 잠잠하군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내겐 그런 신통이 없으니 기대하지도 말아요. 나는 ‘관음법문’ 밖에 안 가르칩니다.

물론 왕은 아주 흡족해하며 말했어요. “원한다! 원해! 계속 말해 보라. 계속해 보라.” 혜앙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설령 그자들이 폐하를 때리거나 죽이고 싶어하지 않는다 해도 그제 폐하를 존중하거나 돕고 싶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다른 신통이 있는데, 이는 그자들이 폐하를 때리거나 죽이고 싶지도 않게 만들뿐더러 폐하를 참으로 존경하고 돕도록 합니다. 폐하, 마음에 드시옵니까?”

아아! 송 강왕은 참을 수 없었어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그는 옥좌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내려와서 혜앙과 악수하고 싶었습니다. “어서 얘기하라. 어서!” 하고 재촉했지요. 이에 혜앙이 말했습니다. “소인에게 또 다른 신통이 있는데, 이 신통은 남녀노소 모두 폐하를 뵈자마자 도우려고 하고 마음속 깊이 우러러보며 존경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폐하께서 용감할 뿐만 아니라 현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인은 이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통들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합니다. 폐하께서 어떻게 이런 신통을 좋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송왕은 물론 “그럼, 좋아하고말고! 참으로 좋도다!”라고 말했어요.

혜앙이 다시 말했지요. “폐하는 이런 신통이 공자, 목자의 신통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자와 목자를 예로 들자면, 그들에겐 나라나 재산이 없었지만 한 나라의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하고 흠모하며 좋아했지요. (스승님 설명: 그가 말한 것은 사람들 마음속의 왕으로서, 꼭 왕위에 올라 큰 군대와 무기, 원자탄 등을 가져야만 왕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공자와 목자도 그런

의미에서 왕이란 뜻이었어요.) 그들에겐 어떤 관직이나 군대도 없었으나, 그들은 주인이었습니다.” 혜앙의 말은 ‘주(Lord)’를 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것처럼요. 산스크리트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면 석가모니불이 ‘주(主) 석가모니’가 될 겁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당시 그의 제자들은 그를 “나의 주님(My Lord)”이라고 불렀습니다. 석가모니불이 살아있을 때도 그의 제자들은 그를 “나의 위대한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스승님!”이라고 불렀지요. 그러니 혜앙이 말한 것은, 공자와 목자는 아무 군대도 없었지만 왕이었고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혜앙은 계속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들을 볼 때면 발끝을 세우고 목을 빼고 보며,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아서 눈도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남녀노소도 그들을 보면 돕지 않을 수 없고, 후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레 그렇게 되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 절을 하고 예를 올리며, 그들을 너무도 좋아한 나머지 그들을 보호하려 하고 그들을 위해선 무엇이든 다 하며 심지어 그들을 위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혜앙의 말뜻은, 공자와 목자는 사람들로부터 진심 어린 존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옥좌에 올랐기 때문에 백성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왕위에 오른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들을 좋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욕을 먹고, 혁명으로 왕위에서 쫓겨났지요. 그러므로 왕위에 올라 자신을 왕이라 칭한다고 해서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반면 목자, 공자는 땅 한 평 없었고 재산이나 관직, 무기 등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그들을 보면 좋아하고 돕고 싶어했습니다. 까치발을 해서 목을 빼고 보려 했으며, 보면 볼수록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혜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이미 한 나라의 왕이시니, 공자와 목자의 이런 신통을 실행하신다면 두 사람보다 더 현명해지고 덕이 높아질 것입니다!” ✨

밝은 미래를 여는 깨달은 정부

스승님의 지시에 따른 보도 및 스승님의 평점



일본



국제 구호 활동에 막대한 기여를 하는 일본

일본 뉴스그룹 (원문 일본어)

일본은 국제 구호 활동에 많이 기여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1954년부터 '정부 개발 원조(ODA)'를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그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있다. 일본은 재해 지역에 무상 보조금을 지원하고, 어울락 등 여러 나라에 AIDS나 말라리아, 그 밖에 다른 전염병 확산을 막는 의료 지원 등 재정 지원과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은 또한 콜롬비아나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나라의 비정부 기구(NGO)와 협력해 지뢰 제거 활동을 벌이고, 가난과 내전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원해 그 나라의 농업 및 기반시설 계발에 도움을 주었다. 이 밖에 일본과 개발도상국 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해외 협력 봉사단(JOCV; Japanese 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s)을 설립해 보다 평화롭고 번영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다.

일본은 UN 연간 예산의 거의 20%(19,468%)를 부담함으로써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국제

기구에 지원하고 있으며, UN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 난민구제사업국(UNRWA), 세계식량계획기구(WFP),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비롯한 UN 난민 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고도로 효율적인 긴급 재난 구호 팀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에서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하면 구조 팀은 24시간 내에, 의료 팀은 48시간 내에 재난 발생 지역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싱가포르, 미국 마이애미,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네 군데 물류창고에서 긴급 구호물자를 재해지역으로 선적해 보낸다. 1992년에 설립된 일본 국제 협력 기구(JICA)는 지역 정부와 NGO, 또는 개인이 기부한 구호물자를 재해지역으로 운송하고 있다. JICA는 2005년 3월부터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몰디브의 쓰나미 피해 지역에서 복구, 재할 및 재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





밝은 미래를 여는 깨달은 정부

스승님의 지시에 따른 보도 및 스승님의 평점



중국



중국 농민 정책 개혁이 대중에 이로움을 주다

중국 동수 정리 (원문 중국어)

농업세 폐지

농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06년 1월 1일부터 농업세를 폐지하는 중요한 법령을 시행했다. 2천 년간 존속되어 온 농업세를 폐기한 이 기념비적인 조치로 인해, 수년 전부터 농업세를 감면해 온 중국 정부는 농민에게 가장 확실하고 실제적인 혜택을 가져다주게 되었다.

료, 장례 등 다섯 가지 방면에서 무상 지원과 관리를 받게 된다. 이전까지 이런 비용들은 농민들이 상호 공제 형식으로 부담했지만, 개정된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 가난한 농민들은 정부로부터 현대적인 사회 보장 제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5대 보장’ 제도가 농민 부담에서 정부 부담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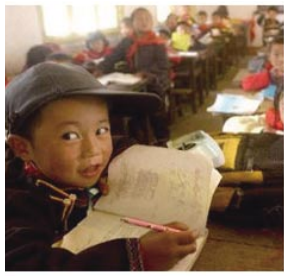
2006년 3월 1일부터 ‘농촌 5대 보장 조례’가 시행되었다. 이 법안에 따라 농촌의 극빈층 주민들은 이제 정부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되게 되어 의식주와 의

농촌 무료 의무교육 2년간 제공

서부 농촌 지역의 빈곤 가정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06년 봄 학기부터 해당 지역의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교



밝은 미래를 여는 깨달은 정부



육비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그 중 극빈 가정의 학생들은 교과서 대금을 면제 받고 하숙비의 일부를 지원 받는다. 이 정책은 2007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농촌 지역에서 시행된다. 이 계획에 관해 교육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농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비를 감면해 줌으로써 가난한 집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그 당사자와 후대, 그리고 농촌과 나라 전체의 발전에 대해 장기적 의미를 갖는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 농민들이 ‘신농촌’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고자 계획하고 있다.

쌀 생산 농가에 보조금 지원

2004년에서 2005년까지 두 해 동안 정부는 다양한 재정 관련 법령을 통해 쌀 생산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앙 정부가 농민의 기초생계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농민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실히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농민 소득의 보장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정부는 농민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주를 엄중히 처벌하는 일련의 법규를 제정해서 피해 농민들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고용주에게 임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정부는 또한 최저 임금제, 의료 혜택, 산업재해 및 사고로 인한 사망, 연금, 출산 휴가와 자녀 교육 등에 관한 법령을 제정했다. 농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이런 법안들로 인해 농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수 있게 되었다. 🌟

농촌 지역의 새로운 의료 보험 제도

농민들이 보통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의료 체계를 정비해 약값과 치료비를 낮추는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보험 제도를 시행해 이 새로운 보험 정책을 농촌 전역에 장려함으로써 의료비 중 보험 공제율을 높이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농민들은 적은 비용으로 의료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신(新)농촌 건설

최근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 ‘신농촌’은 ‘생산성, 번영, 문명화, 청결, 민주’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현재 벽지의 가난한 산촌 지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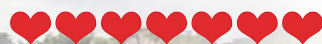


밝은 미래를 여는 깨달은 정부

스승님의 지시에 따른 보도 및 스승님의 평점



포모사



국제 사회에 대한 포모사의 두드러진 공헌

포모사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포모사(주)는 태평양에 있는 아름다운 작은 섬이지만 포모사 정부와 국민들의 위대한 노력으로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기적을 이루어내 국민들은 물질적인 풍요와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며 살고 있다.

포모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다른 나라들과 농업 기술을 공유한다는 점이다. 1959년부터 포모사 정부와 국민들은 4대륙 81개국에 도로와 하천을 건설하고 황무지를 농토로 바꾸는 일을 도움으로써 이 나라들이 가난을 물리치고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해왔다.

예를 들어, 1960년부터 1970년까지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선 심각한 기근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UN에서는 이 굶주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식량 보내기' 운동을 전개했지만, 식량 공급은 당면 문제에 대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았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농업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어 현지 주민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었다. 일례로, 중앙아프리카 부르키나



밝은 미래를 여는 깨달은 정부

파소(Burkina Faso)의 코우강(Kou River) 유역은 원래 잡초만 무성한 불모지나 다름없었지만, 포모사 농업 기술 팀이 낫, 괭이, 콘크리트 믹스기 같은 장비들을 옮겨 와 이 지역 주민들을 이끌어 10km가 넘는 관개 수로를 파는 것을 도왔다. 이 지역이 황무지에서 농지가 되기까지 3년이 걸렸고, 그 결과 천 명이 넘는 농민들이 가족과 함께 정착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농업, 수공업, 홍수 방지, 저수 공법에 관한 기술적인 지원 외에 포모사 정부는 또한 그곳 농민들이 생산규모를 늘리고 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술전수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더 나아가 포모사 정부는 동카리브해 지역과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소규모 농민들을 대상으로 대출 프로젝트를 착수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켰다. 이 밖에 포모사 정부는 몽골과 동카리브해 3개국에 학자금을 지원해서 이 지역 어린이들이 기초 교육을 받게 했으며 학교 중퇴율을 감소시켰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2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

포모사 정부는 또한 상투메(Sao Tome) 섬, 프린시플 바이레터럴(Principe Bilateral), 말라위(Malawi), 차드(Chad), 부르키나파소 등 여러 나라에 의료 팀을 파견해 의료장비를 제공하고 기술을 지원했다. 또한 가난한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 비타민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 나라는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의료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포모사 정부는 ‘동카리브해 4개국 의료시설 기증 프로젝트’와 같은 특별 프로젝트를 통해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시설과 기자재를 제공했다. 포모사 정부는 이 외 인도에 있는 티베트인들에게도 이동 진료 차량들을 제공했다.

인도주의적 원조 방면에 있어서도, 포모사 정부는 재해를 입은 나라에 긴급 재난 구호 원조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1년 엘살바도르와 페루에 지진이 발생하자 구호금을 기부하고 외국 기술 지원 팀과 협력해서 이 두 나라의 사후 복구 활동을 도왔다.

포모사는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그 자비심은 무한히 크기만 하다. 세계 각국이 현재 식량 부족과 에이즈, 말라리아 발발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공동으로 협력하게 되었지만, 포모사 사람들은 그 오래 전부터 기술 팀, 의료 팀, 비정부기관들을 통해 사랑의 손길을 제공함으로써 인도주의적 돌봄의 정신을 완벽히 구현했다. ✨

주: 우리 뉴스잡지에서는 대만을 포모사(‘아름답다’는 뜻)라고 칭한다. 스승님은 포모사라는 이름이 이 섬나라와 그 국민들의 아름다움을 보다 완벽하게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며, 이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포모사 섬과 그 주민들에게 영적인 고양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여기신다.

밝은 미래를 여는 깨달은 정부

스승님의 지시에 따른 보도 및 스승님의 평점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다

조이 위즈덤/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원문 영어)



2006년 3월 6일 사우스다코타 주 마이크 라운즈(Mike Rounds) 주지사는, 30년 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합법화시켰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새로운 법에서는 생명이 '태아 때부터' 시작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라운즈 주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말했다. “세계 역사에서 진정한 문명의 척도는 사회에서 가장 상처받기 쉽고 힘없는 존재들에 대한 처우에 달려 있습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고 후원한 사람들은 낙태가 잘못됐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라운즈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령에서는, 의사는 임신부의 생명을 구하고자 할 때만 낙태 수술을 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도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료 노력’을 다해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다 같이 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강간이나 근친상간 같은 경우라 해도 낙태 수술을 시술한 의사는 최고 징역 5년의 중형을 받을 수 있다. 산모는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법령에서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을 당하긴 했어도 임신이 확정되지 않은 여성에게 피임약을 처방해 주는 것을 금지하진 않는다.

이 금지 법령으로 인해 다른 여러 주에서도 낙태를 반대하는 이 ‘위헌적인’ 법을 제정하도록 추진하기 시작했다. ✨

자료 출처:

<http://www.care2.com>

<http://news.independent.co.uk/world/americas/article349894.ece>

<http://www.chron.com/disp/story.mpl/editorial/outlook/3705186.html>

<http://www.cnn.com/2006/POLITICS/02/22/dakota.abortion.ap/index.html>

<http://www.cnn.com/2006/POLITICS/03/06/sd.abortion/>

밝은 미래를 여는 깨달은 정부

스승님의 지시에 따른 보도 및 스승님의 평점

미국 정부가 동물 성분이 포함된 식품의 성분을 보다 자세히 표기할 것을 요구하다

빈센트 응우옌 정리/ 미국 버지니아 (원문 영어)



식품 제조업자들은 보통 연지벌레 암컷을 건조시켜 얻은 코치닐(cochineal) 색소를 사용하는데, 특히 요구르트나 화장품, 약품 등에 많이 들어간다. (주)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곤충을 이용한 원료인데도 성분이라는 이유로 식품 제조업자들에게 ‘색소 함유’라고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곧 바뀔 것으로 보인다. 식품에 동물 성분을 사용하는 것이 채식주의자들과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식품의약국은 제조업자들에게 카민(carmine) 또는 코치닐 추출물이 포함된 모든 상품에 대해 원료 표시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안전을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대중들은 FDA에서 제안한 규칙에 대해 5월 1일까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대중의 건강을 지지하는 단체인 공익과학센터(CS

PI: 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는 오래 전부터 식품 표기 조건을 개정할 것을 FDA에 요구해 왔었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색소의 본래 이름과 원천을 표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SPI의 마이클 제이콥슨(Michael Jacobson) 소장은 “사람들이 ‘카민’이나 ‘코치닐’의 의미를 알기 위해 구글로 검색하거나 사전을 찾도록 만드는 것은 상당히 비열한 것이다. 그냥 떼떼하게 이 색소들을 진짜 이름, 즉 곤충 추출물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



자료 출처- 식품 품질 뉴스 사이트와 ABC 뉴스

<http://www.foodqualitynews.com/news/ng.asp?n=65603-cochineal-carmine-color>

<http://abcnews.go.com/Health/story?id=1549583>

주: 2006년 1월 27일 『월스트리트 저널』



밝은 미래를 여는 깨달은 정부

스승님의 지시에 따른 보도 및 스승님의 평점

보다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며 보다 자연적이고 자비로운 생활 방식을 향해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세계는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다음 내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다음은 전세계 정부가 동물 친구들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법에 대한 내용이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다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설명한 짤막한 글이다.

식품 표시는 건강과 도덕성을 증진시킨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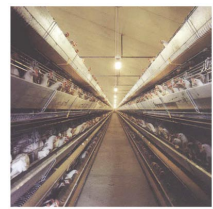
동물 복지 표시 제도에 따라 유럽 연합 소비자들은 동물 처우에 대해 보다 높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한 인증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농장주들에게 경제적인 압력을 가해 잔인한 사육 방식을 저지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동물의 권리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주 1)

유기농 식품 표시는 고객들이 화학 비료나 살충제, 호르몬, 항생제 또는 기타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식품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제 비유기농 식품보다 영양이 풍부하고 건강에 이로운 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비유기농 식품에도 영양 가치가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그 속에 포함된 화학물질 때문에 섭취했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현재 유럽에서는 전체 농지의 10%가

유기농을 하고 있다. (주 2)

호혜 무역 표시가 된 식품은 가난한 모두 국가로부터 수입된 상품이며, 이를 생산한 농민들에게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판매를 통해 생긴 이윤은 그 지역 사회에 재투자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국의 호혜 무역 상품은 2003년에 150종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1300종으로 증가했다. (주 3)



전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2008년 하계 올림픽을 위해 공기를 정화하다 ♥♥♥

중국은 미화 4백 억 달러를 들여 공해를 유발하는 천 개 이상의 공장들을 북경에서 옮기고 공해를 일으키는 교통수단을 무공해 교통수단으로 교체하는 등 2008년 하계 올림픽을 맞이해 베이징의 공기를 정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4백억 달러 중 10억 달러 정도는 먼지 폭풍의 침입을 막기 위해 베이징 외곽 지역에 6천 마일(약 9,720km)에 이르는 가로수를 심는 데 사용되었다.


이 밖에 4천만 평방미터의 잔디를 각 고층 건물

밝은 미래를 여는 깨달은 정부

스승님의 지시에 따른 보도 및 스승님의 평점


옥상에 조성함으로써 베이징의 녹색지대를 넓히고 나아가 2008년까지 깨끗한 공기를 만들려는 정부의 목표에 다가서고 있다. (주 4)

인도의 지도층이 모범을 보인다


인도의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수상은 채식
을 좋아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또한 ‘인도에서 가장
청렴한 정치인’으로 유명하며
현재 인도의 경제 번영에도 크게 공헌하고 있다. 그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국가의 지도자이지만 아직까지
직접 전화를 받고 매일 손수 운전해서 집에 돌아가 아내와 함께 간단한 채식 점심 식사를 한다. (주 5)





인도의 대통령인 A.P.J 아불 칼람(Abdul Kalam)
박사 또한 채식주의자이면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 칼람 대통령은 연설을 할 때 15세기 시인이자 성자인 까비르(Kabir)의 시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힌두교도이자 무슬림이기도 하다. (주 6)

인도의 또 다른 긍정적인 사실은 전세계에서 채식
하는 인구가 가장 많다는 것으로, 최소한 1억 5천만
이상이 채식을 하고 있다. (주 7)

1만 명의 벨기에인들이 육식을 줄이기로 맹세하다 

2006년 1월, 벨기에의 주요 일간지인 『르 소와(Le Soir)』는, 만 명의 벨기에인들이 육식을 줄이기로 맹세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그들이 세계자연재단(World Wide Fund for Nature)에서 나눠준 전단지들을 보고 결심한 것으로써, 이 전단지에는 여러 가지 생활 방식에 따르는 환경에 대한 영향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중 상위 세 가지 선택 중 하나가 육식을 줄이는 것이었다. (주 8)

‘집오리 간 요리(Foie Gras, 푸아그라)’를
금지함으로 거위를 보호하다

전통 별미로 꼽히는 ‘집오리 간 요리’, 또는 거위 간의 생산과 판매가 미국 캘리포니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주요 생산국이었던 폴란드를 비롯한 15개국에서 금지되었다. 유럽 연합 정부는  모든 나라가 2010년까지 거위 간 요리 산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러한 잔인한 음식에 대한 대중들의 반대가 세계적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주1: http://europa.eu.int/comm/food/animal/welfare/index_en.htm

주2: <http://www.organic-europe.net/>

주3: <http://observer.guardian.co.uk/foodmonthly/story/0,,1715290,00.html>

주4: <http://www.msnbc.msn.com/id/7911618/>

주5: http://news.bbc.co.uk/1/hi/world/south_asia/3725357.stm

주6: <http://www.dailycexcelsior.com/02july26/national.htm#3>

주8: <http://www.european-vegetarian.org/lang/en/info/howmany.php>

주9: http://www.lesoir.be/rubriques/s_e_n_s/page_5763_401860.shtml




스승님의 지시에 따른 보도 및 스승님의 평점

티베트의 비폭력 운동이 자비의 햇불을 밝히다

줄리 치우 사저/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원문 영어)

티베트인들은 수세기 동안 거친 히말라야 환경에서 생존한 까닭에 전통적으로 야생동물을 통해 식량과 옷을 얻어 왔다. 이는 그 지역의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백색 핑’이나 ‘티베트 푸른양’과 같은 히말라야에서 만 서식하는 희귀동물들을 멸종 위기로 몰았다.

이에 1942년 초, 제5대 달라이 라마는 동물과 환경 보호를 위한 법령을 공포했으며 그후 매년 비슷한 법령들이 제정되어 해가 갈수록 살생이 없는 날이 길어지고 살생이 금해진 동물들의 종류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 밖에 티베트 정부는 티베트인들에게 땅을 경작해 대안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1989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제14대 달라이 라마는 이러한 비폭력 운동을 매  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그의 저서 『인류가 세계 평화를 얻는 길(The Human Approach to World Peace)』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모든 존재는 평화와 안락, 안전을 추구한다. 아주 작은 벌레일지라도 살아 있는 모든 존재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살고자 노력한다.” (주 1) 1993년 달라이 라마가 채식주의를 권하기 시작한 이래로 보다 많은 티베트인들이 채식주의를 하게 됐으며, 두부 또한 인기를 끌게 되었다. (주 2)

히말라야에 있는 티베트 주민들이 더 이상 동물 모피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달라이 라마는 동물 복지 및 보호 자선단체인 ‘국제 야생동물 보호 기구(Care for the Wild International)’와 비영리 동물 보호 단체인 ‘인도 야생동물 보호 협회(The Wildlife Trust of India)’에 가입했다. 티베트인들이 동물 모피를 옷으로 삼는 것에 관해 달라이 라마는 말한다. “사람들이 동물의 가죽과 털로 치장한 사진들을 보면 나는 부

끄러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야생동물이나 그 동물들로 만든 제품들은 사용하지도 말고 팔거나 사지도 마십시오.” (주 3)



2006년 2월 18일 CBS뉴스는 “수천 명의 티베트인들이 망명한 그들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호소에 따라 희귀동물들의 모피를 태우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로 만들어지는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주 4)

티베트인들의 비폭력 운동은 인도, 중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과 같은 이웃나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정부에게도 환경과 지구상의 다른 동거인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 내적·외적 평화를 유지하는 열쇠라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참고 사이트:

주 1. <http://www.tibet.com/Eco/eco7.html>주 2. <http://www.godsdirectcontact.org/eng/news/160/index2.htm>주 3. http://www.truthout.org/issues_06/021506EA.shtml주 4. <http://www.cbsnews.com/stories/2006/02/18/ap/world/mainD8FRA0Q03.shtml>

스승님의 지시에 따른 보도 및 스승님의 평점

미군이 동아프리카에서 평화를 유지하다

미국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홍해 해변의 작은 국가인 지부티(Djibouti)에는 르 모니에 캠프(Camp Lemonier)라는 옛 프랑스군 기지가 자리 잡고 있다. 2002년부터 1,500명의 미군이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들의 임무는 원래 911 테러 이후 테러범들을 잡는 것이었으나, 이곳에 도착한 후 단 한 번의 전투도 없었고 단 한 발의 총성도 울린 적이 없다.

빌 포터(Bill Porter) 대령 ♥♥♥♥♥

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틀에 박히지 않은 전쟁을 수행 중입니다... 말하자면 (전쟁이 아닌) 평화를 ‘별이고’ 있다는 거지요. 이곳에는 총을 쏘는 전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군들은 현재까지 30개의 학교를 새로 짓고 25개의 진료소를 세웠다. 그들은 고향 친구와 자선단체들의 기부를 받아 교과서와 학용품들을 충당했다.

최근 몇 주 동안 동아프리카에 지독한 가뭄이 발생한 까닭에 병사들은 우물을 파는 한편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들과 동물들에게 예방 접종을 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르모니에 캠프의 지휘관인 티모시 고클리(Timothy Ghormley) 장군은 병사들의 전술을 설명했다. “그들

은 마을 안으로, 도시 안으로 진입해 마을의 지도자들과 이맘(Imam-이슬람 종교 지도자), 장로, 촌장 등을 만나서 마을의 안정을 증진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보다 편하게 만들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사람이 한 마을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부티 작전은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 내에 큰 변화가 생겼음을 나타낸다. 작년 한 해 미국의 여론은 반전(反戰)의 분위기로 바뀌었고, 정부의 대외정책은 전쟁을 피하는 쪽으로 전환되었으며 UN을 비롯해 동아프리카 국가들과 조약을 맺으며 다른 나라와의 결속을 다져나가고 있다. 미국 도널드 럼스펠트(Donald Rumsfeld) 국방장관은 동아프리카 작전을 ‘국방부의 미래형 모델’로 칭했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아프리카에서 수행하는 가장 큰 군대 활동으로서, 국방부는 아프리카와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동맹하여 이 활동을 확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참고 사이트:

<http://www.hoa.centcom.mil/index.asp>

▶ ‘아프리카 뿔’ 다국적 통합 특별군의 대원인 크리스틴 스메들리(Kristine Smedley) 상사가 아프리카 지부티의 한 학생에게 소아마비 백신을 복용시키고 있다.



(사진 출처: www.hoa.centcom.mil)



▶ 오보크(Obock) 지역 어린이들이 오보크 마을 회관에 새로 만들어진 농구장을 사용하고 있다. 이 회관은 ‘아프리카의 뿔’ 다국적 통합 특별군과 지부티 정부, 지역 공무원의 협력으로 보수, 완성되었다.

신의 축복으로 국가의 의식이 고양된다

칭하이 무상사/ 1993. 3. 8. 싱가포르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327

한 나라의 의식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 나라 정부가 현명해서 바깥의 좋은 영향을 수용하고 기꺼이 배우고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고자 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며, 현자들에게 많이 배워서 자신의 지혜를 보다 완전하게 발전시켜야만 합니다. 이 때문에 고대로부터 수천 년이 지나도록 위대한 왕들이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 모든 이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온 인류의 가슴에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만일 정부 조직이 훌륭하다면 국민들은 보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느낄 것입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만족스럽고 안전한 삶도 보장되기 때문에 높은 삶을 추구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보살피기보다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보살피는 것이 그 시작점의 일부이긴 하지만, 우리가 온갖 종류의 좋은 영향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때 지혜가 이 땅에 찾아들 것이며 축복이 밀려들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단합해서 한 마음으로 국가를 발전시키고 축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좋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정책상 많은 제한을 두어 현자들이나 훌륭한 사람들도 입국하기 어렵게 해놓았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범죄자를 두려워해서 현자나 훌륭한 사람, 성인들에게도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설령 그 나라가 물질적으로는 많이 발전했다 해도 그것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의 축복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

깨달음은 인류의 발전에 필수적이다

칭하이 무상사/ 1993. 4. 7. 미국 워싱턴 시애틀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348

우리 시대는 이미 변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분위기 속에 살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인류는 더욱 손쉽게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선 지구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무력이 아닌 지혜와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리길 기원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이들은 형제와 같고 모든 나라는 집안에 있는 서로 다른 방과 같으니 온 가족이 앞으로 서로 방을 나눠 쓰며 조화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중 대다수가 깨닫지 못하고, 내면의 대지혜로 세상과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보살피지 않는 한 이 세상은 우리가 꿈꾸는 대로, 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어떤 강대국 정치가의 손에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행성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 고대 솔로몬이나 다윗 왕과 같은 대지혜를 가진 왕이 있다 해도 대중들이 무지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그는 많은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깨달았고 또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축복하거나 이웃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끌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이끌다 보면 얼마 있지 않아 대다수 사람들이 본래 갖고 태어난 지혜 속에 살게 될 것이며, 이 지혜로 세상을 축복해 이 세상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책이나 전문 분야의 경험에서 얻은 유한한 지식만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인류를 위해 아주 작은 봉사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충격의 반전

칭하이 무상사/ 2003. 2. 4.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DVD No. 754

어떤 목사가 부탁을 받아, 심장병이 있는 사람에게 100만 달러 유산을 상속받게 된 사실을 알려주러 가게 됐습니다. 그에게 심장병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그가 이 사실을 들으면 너무 놀라 죽을까 걱정했거든요.

목사는 “좋아요, 문제없어요!” 하고선 그 남자의 집으로 가서 부드럽게 얘기를 나누다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존, 만일 당신이 100만 달러를 상속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존이 대답했지요. “글쎄요, 목사님. 그렇게 되면 그 중 반을 목사님네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목사는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



스승님의 농담을 동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주위 분들과 함께 유쾌한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news/165/jk1.htm>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65/jk1.htm> (포모사)



신의 사랑을 찾는 것이 곧 모든 행복의 근원을 찾는 것

청하이 무상사/ 1995. 8. 18. 독일 뮌헨 (원문 영어, 독일어)
비디오테이프 No. 566

신은 정말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종인 나를 비롯해서요! 신은 내게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영광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신은 우리가 언제나 함께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도록 축복하셨으며, 우리가 굳이 청하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가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께서 이토록 잘해 주시는 것에 언제나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하며, 우리보다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언제나 신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명상할 때마다 신께 먼저 감사드린 후 다소 운이 좋지 않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쁘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아주 간단하고 매우 순수하며 굉장히 효과가 커서 그 외 모든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깁니다.

명상을 많이 할수록 의문이 적어지며 심지어 어떤 질문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명상을 한 후로는 그 어떤 것도 중요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행복하게 느끼며 더없이 즐겁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지요. 그래서 그때는 두뇌가 생각도 많이 하지 않고 쓸데없는 질문도 많이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기쁨에 차고 행복해질수록 내면 또한 충만해져서 정말로 더 이상 궁금한 것도 없고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설령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신인 영화배우가 누구인지 모르고 최신 기술이나 발명품, 세계 건축물들에 대해 그리 많이 알고 있지 않다 해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신의 사랑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런 사랑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만족하게 되지요.

이런 신의 사랑이 없으면 괴롭고 언제나 더욱더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무언가를 바라고 또 바라며, 탐욕스럽게 갖고 또 갖습니다. 그러고는 스스로 기쁨을 구하기 위해 온갖 해로운 마약과 술, 다른 것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안 좋아지고 문제만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 때문에 신에 대해 명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르면 스승의 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사람, 어떤 사자(使者)를 보내 우리를 인도하고 신에 대해 바르게 명상하는 방법을 기억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돈에 대해 명상하거나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대해 명상한다면, 이것도 명상이라 할 순 있어도 결과는 확연히 달라져서 나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것을 명상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가는 자신의 기업에 대해 명상하고 정치가는 자신의 명성이나 경력에 대해 명상하며 바람둥이는 아름다운 여인들에 대해 명상합니다. 각자 집중하는 대상이 다르지요. 우리에게겐 집중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집중의 목표를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돈이나 명성, 이 세상의 순간적인 기쁨과 같은 덧없는 것들을 명상하는 대신 대상을 바꿔 신에 대해 명상하면 그 외 모든 것들이 생깁니다.

나는 돈이나 명성을 위해 신을 찾진 않았지만, 내가 신께 매우 집중하자 신은 내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집중하고 신을 향해 헌신한 결과 얻은 증거입니다. 또한 여러 분이나 다른 사람들이 증명한 사실이기도 하지요. “먼저 신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신만을 원하고 다른 것을 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100% 사실이지요. 내가 살아 있는 증거입니다! 신은 언제나 나를 돌봐주시고, 내가 정말 필요로 하거나 내게 없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시기에 나는 늘 행복합니다.

명상을 많이 할수록 결국 우리에게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신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돌봐주십니다. 매일 명상을 하면 이런 기적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루하루가 기적이지요.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행복해지고 더욱더 사랑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신이 주신 최상의 선물인 것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주신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관계를 축복으로 주시면 그것도 좋습니다. 신이 집이나 더 많은 자가용을 주시면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신이 주시는 것은 그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하느님, 전 물질적인 건 원치 않아요,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이 어떤 것을 주시든 다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나누고 또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함께 나누면 모두가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이웃을 해치지도 않을 겁니다. 모두 다 행복하니까요. 이것이 우리 지구의 미래상이며 우리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합시다. 만약 그리 되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우리가 있는 곳은 평화롭고 행복하며 화목할 것입니다. 남편, 아내, 이웃,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세계’만큼은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며 화목하겠지요. ‘우리의 세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계’가 가장 중요한 초석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세계’가 없다면 큰 세계, 심지어 온 우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방의 벽을 구성하는 벽돌이 하나라도 빠지면 벽이 존재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벽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많은 벽돌들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벽돌이 중요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 친구, 이웃들로 구성된 우리의 작은 세계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작은 세계를 잘 돌보면 큰 세계도 저절로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



점괘를 따르기보다 직관을 따르는 것이 낫다

청하이 무상사/ 1999. 2. 15.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35b

질문: 저는 취미 삼아 점성술을 공부했는데, 점성술이 물질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사람들의 잠재능력과 단점을 분석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미로 점성술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수행자의 신분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보는 것을 말해 주는 게 옳은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상반된 결과를 가져와 제가 업장을 짓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승님: 음, 우리는 때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뭔가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해서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와! 당신의 운세가 변하고 있어요. 백만 달러에 당첨될 겁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심장발작으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쁜 일이 생길 운명이라서 당신이 “여자친구가 당신을 차버리고 다른 남자친구를 사귄 거예요.”라고 말해 준다고 칩시다.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찌면 그들은 수행의 힘으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 운명을 바꾸거나 최소한 뒤로 미룰 수도 있었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해버리는 바람에 그들은 그 말에 걸려 결국 포기하고 비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뭐 하러 사람들에게 미래를 말해 줘니까? 현재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난 일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전생에 당신은 도둑잡자였어요. 그래서 지금 돼지같이 보이는 겁니다.”라고 말한다고 해 봐요. (대중 웃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지요? 그는 여전히 돼지처럼 보이고 또한 그에게 전생에 푸줏간 주인이었다고 말해줬다고 해서 그의 성격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질문: 그렇지만 스승님, 제가 사람들의 잠재능력을 분석할 수 있다면요? 영적인 면에서 말입니다.

스승님: 외부 사람들 말인가요?

질문: 예.

스승님: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금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질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업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 제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나 인간관계 같은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뿐 아니라 수행적인 측면의 미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들이 원하면 알려줘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그게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승님: 하지만 상황이란 것은 항상 변하게 마련입니다. 언제든 그렇지요! 날씨조차 어떤 사람의 의식이나 집단 의식 또는 누군가의 신통에 의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일어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하던 대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서 그 결과에 따라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연스럽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대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직관으로 느끼게 되며 그러면 가장 옳은 일을 행하면 됩니다. 당시에는 몰랐더라도 나중에 깨닫게 되지요. “아! 내가 한 행동이 옳았구나.” 하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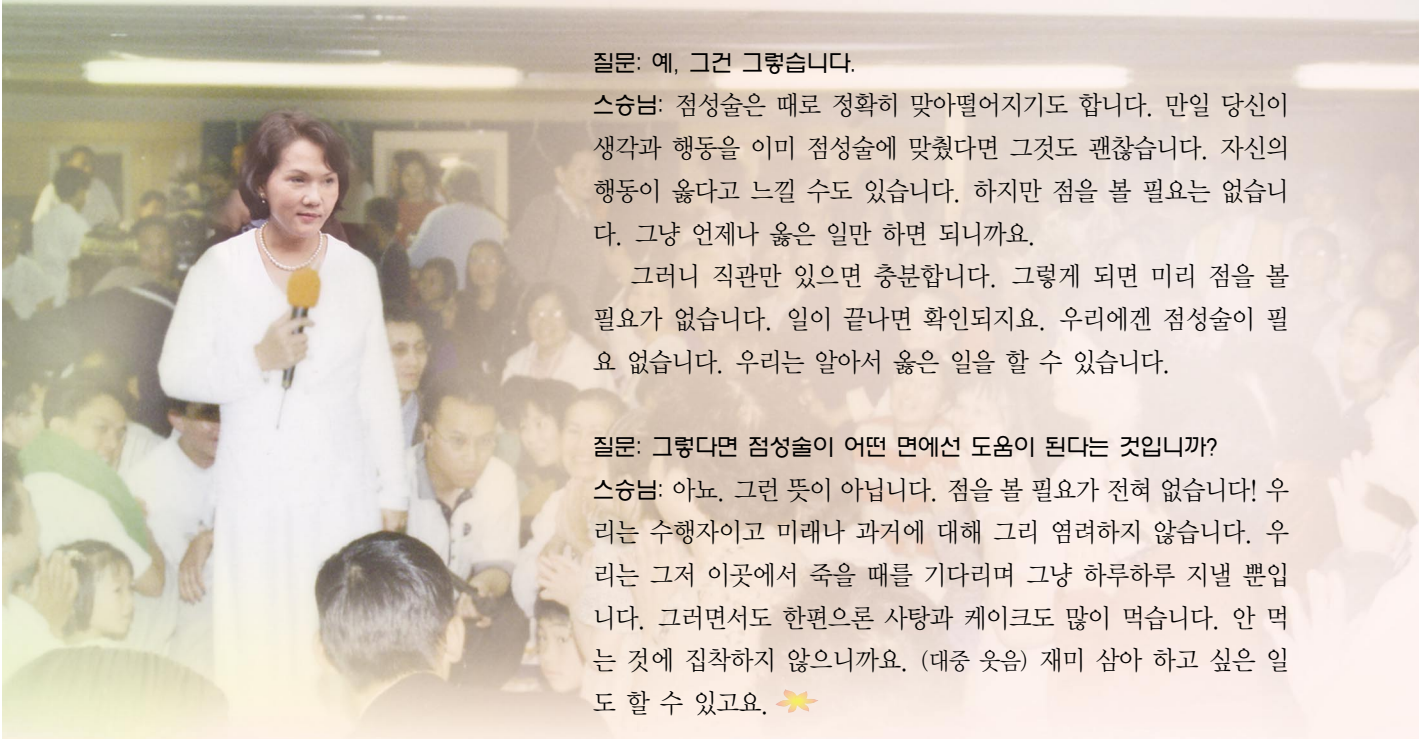
질문: 예, 그런 그렇습니다.

스승님: 점성술은 때로 정확히 맞아떨어지기도 합니다. 만일 당신이 생각과 행동을 이미 점성술에 맞췄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언제나 옳은 일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 직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리 점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일이 끝나면 확인되지요. 우리에게 점성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서 옳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점성술이 어떤 면에선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까?

스승님: 아뇨,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점을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수행자이고 미래나 과거에 대해 그리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곳에서 죽을 때를 기다리며 그냥 하루하루 지낼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사탕과 케이크도 많이 먹습니다. 안 먹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니까요. (대중 웃음) 재미 삼아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고요. 





운명은 부지런한 수행과 신의 은총을 통해 바뀔 수 있다

청하이 무상사/ 1999. 5. 26. 슬로베니아 류블라나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60



질문: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운명, 또는 숙명입니까?
바뀌 말하자면, 현재나 미래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까? 운
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스승님: 예, 모든 사람들의 운명, 또는 숙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운명을 바꿀 만큼 우리 의지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신의 은
총과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명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
다. 그러나 신과 다시 연결된 후에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
부터는 두뇌로 일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우주적
힘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문 후에는 영매들도 여러분
의 손금을 읽을 수 없으며 여러분의 미래를 말해줄 수 없습

니다. 아무것도 못 보지요. 그건 여러분의 의식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높은 수준에서는 사물을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으며,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다른 비밀을 알려주겠습니다.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주의 창고에는 동
시 다발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매일 명상을 하는 동안 이러한 여
러 가지 가능성을 엿볼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일은 고르고 원치 않는 일은 거부할 수도 있
습니다.

신의 왕국에는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연속된 시간만 존재하며 모
든 일이 한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수많은 선택들로 가득 찬 창고와 같지요! 예수님은 “내 아버
지의 집에는 많은 저택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오직 한 가지 선택, 아주 낮은 의식에만 갇혀 있습니다. 이른바 ‘물질적 저택’인 셈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다른 대안을 모르니까요.

신을 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저택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갖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
면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총애를 받고 우리 삶은 더욱 충만하고 만족스럽고 행
복해집니다. ‘많은 저택’이란 말은 수많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여러
가지 구조물(저택)이 하나의 건물 안에 존재하고, 그 속에서 동시에 서로 다른 일들이 진행되는
것과 같은 거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 일은 선택하고 저 일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달
은 사람만이 이 모든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이른바 ‘나쁜 업장’을 지울
수도 있는 겁니다. 업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에 태워버리거나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모든 일 속에 담긴 신의 뜻을 이해하고 지혜와 자비심을 키우라

칭하이 무상사/ 1999. 5. 31. 스웨덴 스톡홀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55b

질문: 스승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승님은 항상 행복하십니까?

스승님: 나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바로 신을 아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전세계를 다니며 '여러분이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예, 나는 대개 행복합니다. 그러나 때로 고통과 곤경에 처해 좌절을 겪은 사람들이 불행해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면 나 역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면 나도 불행합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상황에 따라 어떤 외적인 불행에 처해도 나의 내면은 언제나 평온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감정과 마음이 영향을 받고 두뇌가 괴롭더라도 나의 영혼과 지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그 나름의 목적이 있으며 그 모든 신의 안배는 완벽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은 그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고통 받는 것을 보기 때문이며, 나는 그들이 그러한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보다 더 알고 있어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자신의 지혜로 진리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괴로워하면 우리도 괴롭겠지요.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가 육체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토록 사랑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

내면의 자아를 깨달으면 바람처럼 자유로워진다

칭하이 무상사/ 1999. 5. 31. 스웨덴 스톡홀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55b

질문: 왜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가 되고 싶은 대로 될 수 있을까요?

스승님: 누가 당신을 방해합니까? 당신 스스로 막고 있을 뿐입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본래 자유롭기 때문이지요. 먼저 자신을 알고 나면 바람처럼, 구름처럼, 신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모두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





진아를 깨닫고 나면 결코 외롭지 않다

청하이 무상사/ 1993. 3. 27. 미국 하와이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341

질문: 왜 제가 때로 너무 외롭고 슬픈지 알려 주십시오. 왜 저는 행복하지 못하고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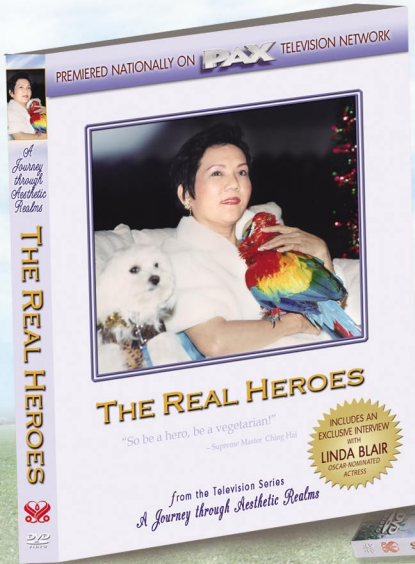
스승님: 그것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때때로 또는 자주 외로움을 느끼며 심지어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심지어 온 세계를 다 준다 해도 흡족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건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 이 미로에 빠지기 전, 자신의 근원을 잊어버리기 전에 더 훌륭한 것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래 속

했던 곳으로 되돌아가서 자신의 가장 위대한 보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크고 작은 모든 요구가 충족될 것입니다. 심지어 성욕도 줄어들어서, 깨닫기 전과는 달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를 봐도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며, 우리가 얼마나 완전한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異性) 또는 상반된 에너지와 결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음과 양, 부정과 긍정, 여성적인 면과 남성적인 면이 모두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만든다면 음양의 균형을 이루고 완전해질 것입니다. 온전한 존재가 되어 아무것도 필요 없고 결코 외롭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온종일 방에서 혼자 지낼 수 있습니다. 매일, 몇 달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할 일이 없거나 강연하러 나가지 않더라도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만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외롭고, 혼자 있을수록 덜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밖을 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나의 생각과 에너지, 주의력을 외부에 두어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의 근심과 슬픔, 외로움을 함께 느껴야 합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나의 완전한 자아를 잊습니다. 그때는 진아와 하나가 될 시간이 없거나 진아와 약간 거리를 둡니다. 사실 나는 결코 분리된 적이 없지만, 내 마음과 초점, 관심은 잠시 이 '완전한 행복으로서의 자아'와 분리되어 외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외로우면 나는 나의 진아와 함께 놀며 진아와 융화되어 바로 완전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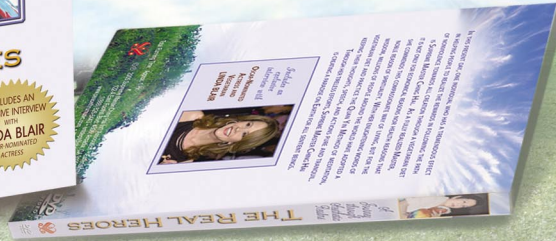
그래서 결코 외롭지 않지요. 당신에게는 모순되게 들리겠지만 한 번 해보면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깨달아야만 합니다! ✨



전미(全美) TV 방송망을 통해 첫 방영된 ‘진정한 영웅’

“그러니, 영웅이 되려면 채식을 하십시오!”

~칭하이 무상사~



미국 로스앤젤레스 센터 엔터테인먼트 팀 (원문 영어)

최근 몇 년 새에 미국은 수많은 자연재해를 겪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큰 피해를 입었다. 2004년 가을 만 해도 네 차례의 초강풍 허리케인이 플로리다를 강타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낳았으며, 2005년 6월 14 일에는 리히터 규모 7.0의 강진이 캘리포니아 해안을 뒤 흔들었다. 지진학자들은 거대한 해일이 샌프란시스코를 덮쳐, 북쪽으로 오리건 주의 도시까지 포함해 샌프란시스코와 캘리포니아 주의 다른 내륙 도시들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것이라고까지 예견했다. 공무원들은 피해가 미칠 도시 주민들에게 대피하도록 경계령을 내렸다. 하지만 신의 은총 덕분에 기적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고 이름난 이 도시에 해일이 발생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다.

미국 전국에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데다 2005년 6월 25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미국 농무부가 미국 본토에서 자란 소가 속칭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 해면상뇌증(BSE)에 걸린 사례를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 섭취는 크로이츠펠트 야곱병(Creutzfeldt-Jakob disease)으로 알려진 인간 광우병으로 직결된다. 이 질병은 치명적인 데다 현재 치료법도 없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미국산 소고기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환상을 완전히 박살냈다. 2004년 미국인의 소고기 총 소비액은 약 710억 달러에 달했으며 평균 잡아 1인당 66 파운드의 소고기를 소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모든 자연재해 및 인재(人災) 속에서, 사랑하는 칭하이 스승님은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성’에서 특집 방송 ‘진정한 영웅’을 제작해 전국 방송사인 ‘인디펜던트 TV(i:Independent Television, 이전의 PAX)’를 통해 방영하도록 허락해 주셨다. 미국으로서는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었다! 이 특집 방송에는 주로 영적인 문제와 채식의 중요성에 대한 흥미진진한 진실을 밝히는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을 다루고 있다. 미국 내 50개 주 국민들이 동시에 스승님의 강연을 시청하는 큰 축복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미국 주요 방송사 중 하나인 인디펜던트 TV는 공중파 방송, 케이블 및 위성 방송 체계를 통해 미국 전역의 9,500만이 넘는 가구에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이 방송사는 건전한 가족 오락 프로그램과 종교 및 영적 주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주로 방송한다. 또한 비교적 영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주요 시청층으로 잡고 있어서 칭하이 무상사와 인연이 있는 구도자들에



게는 안성맞춤인 방송사라 할 수 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한 각 지역 센터의 사형사자들은 신실함과 열의로 푹푹 뭉쳐 신의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다. 역사적인 소식을 대중들과 함께 나누고자 열성적으로 일한 덕분에 스승님의 사랑은 빠르게 각 도시로 퍼져 나갔다. 스승님의 사진이 담긴 방송 광고가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 『USA 투데이(USA Today)』, 『로스앤젤레스 타임즈(Los Angeles Times)』,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 『댈러스 모닝 뉴스(Dallas Morning News)』, 『오레고니언(Oregonian)』, 『보스턴 글로브(Boston Globe)』 등 미국 전역에 배포되는 주요 일간지에 실렸으며, 『월드 저널(World Journal)』, 『중국 일보(Chinese Daily News)』, 『Nguoi Viet 일보』, 『Viet Bao 일보』 등과 같이 전국적인 중국어 및 어울락어 대중 매체에도 광고가 게재됐다. 또한 남캘리포니아 Kost 103.5 FM 라디오를 통해서도 광고가 나가 수백만 청취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졌다.

이 밖에 사형사자들은 각자 자신이 사는 고장에서 수천 부의 전단지들을 배포했다. 동수들은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진정한 영웅’ 첫 방영 소식을 우리 단체의 웹사이트와 관련있는 뉴스그룹, 여배우 린다 블레어(Linda Blair) 팬 사이트, 많은 사람들이 찾는 채식 정보 자료 사이트 중 하나인 www.happycow.org를 비롯해 여러 채식 웹사이트에 올리는 한편 우리 협회의 라디오 프로그램과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이 소식을 선전했다. 스승님의 사랑에 힘입은 모든 동수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스승님만을 생각하며 이 일에 전념했다.

첫 번째 광고가 나가자마자, 열성적인 많은 사람들이 벌써 전화를 걸어 이 프로그램이 방송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얘기했다. 한 여성은 일요일에 잊지 않고 남편과 함께 이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시카고 트리뷴』의 광고를 잘라 냉장고에 붙여 놓았고, 위스콘신의 한 여성은 남편이 채식주의에 관심을 가지

고 있는 자신을 위해 광고를 남겨두었다고 말했다. 위스콘신은 조금 번두리라서 채식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이 프로그램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테이프 사본도 하나 신청했다.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 사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보도록 연락했으며, 비디오로 녹화한 사람들도 있었다. 지방 출장 중이던 한 사업가는 『USA 투데이』의 광고를 본 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 있는 집에 전화를 걸어 아내에게 녹화를 부탁하기도 했다.

2005년 6월 26일 일요일, 마침내 ‘진정한 영웅’이 전국으로 처음 방영되는 날이 되었다. 지금까지 주요 방송사에서 채식과 명상에 대한 주제가 이토록 자세하고 명확하고 진실되게 다루어진 적이 없었다. 프로그램이 이날 방영된 것은 아마 신의 뜻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광우병 사건이 바로 전날에 터졌고 이 경악할만한 소식이 대중들의 마음속에 아직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차였기 때문이다.

방송되기 몇 분 전, 흥분한 많은 시청자들이 전국에서 전화를 걸어 광고를 봤다면 시청하이 무상사의 강연을 시청하기 위한 정확한 채널과 시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마침내 고대하던 순간이 왔다! SM 로고가 나타나더니 ‘진정한 영웅’의 첫 화면이 시작되었다. 중간에 한 번도 끊기도 않고 한 시간 내내 스승님의 모습과 목소리, 스승님의 사랑이 미국 주요 텔레비전 방송망을 타고 방영되었다. 발산되는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대기 중에 진동하면서 모두들 스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2억 9천 5백만 미국 시민들이 모두 축복을 받았다. 이 시간 동안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가 동시에 전체 대중들에게 전해졌다.

‘진정한 영웅’은 스승님의 강연과 더불어 수상 경력에 있으며 동물 권리 옹호자인 린다 블레어와의 독점 인터뷰도 내보냈다. 그녀는 인터뷰 중 시청하이 무상사와 그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했다. (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60

호에 실린 린다 블레이어와의 인터뷰 참고.)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시청자들이 속속 전화로 칭하이 무상사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진지하게 요청했다. 전화를 건 많은 이들이 얼마 전까지는 방송을 보고 전화한 적이 없었지만 이번에 칭하이 무상사에 게서 큰 감명을 받아 좀 더 많은 것을 알고자 전화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전화 문의자들의 공통된 심정 같았다. 다음은 스승님의 강연을 시청한 이들이 보인 감동적인 반응이다.

한 남자는 “방금 TV에 나온 그 숙녀는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는 보통 TV를 잘 안 보는데, 그 날따라 우연히 TV를 켜다가 프로그램 중영을 몇 분 앞두고 애완견들을 안고 있는 스승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담당 동수가 깨달은 스승이신 칭하이 무상사라고 설명해 주자, 그는 TV 화면 속의 스승님 모습에서 눈부신 후광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한 보다 많은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채식을 하는 한 여성도 뉴욕의 브롱크스(Bronx)에서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에는 이 방송처럼 긍정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회에는 폭력이 너무 많이 횡행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프로그램은 시리즈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릭 사이몬스(Rick Simmons)라는 시청자는 평소 많은 책을 읽어 봤지만 스승님처럼 말씀하시는 분은 못 봤다고 말했다. 그는 스승님이 전하시는 메시지와 성경 해석이 매우 흥미롭고 논리적이라면서, 육식동물이 채식동물보다 흥폭하다는 말씀이 설득력 있게 와 닿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그는 육류 섭취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면서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음이 아주 편안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전화를 한 다른 사람들도 스승님의 설명이 채식과 동물들에 대한 자비심, 영성에 관해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마음을 열어주었다고 동감을 표했다.

텍사스는 대형 방목장과 소고기 생산으로 유명한 주이다. 그래서 동수들은 텍사스에 사는 알 존스(Al Johns)의 전화를 받고 아주 반가워했다. “이렇게 말을 짜임새 있게 잘 하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라며 그는 스승님의 영상을 처음 본 소감을 이어서 말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전 이미 스승님과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스승님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고요하시며 진실되십니다.” 육식의 위험성에 대해 알게 된 후 그는 채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풍부한 프로그램 제작 경험으로 보았을 때 스승님의 프로그램이 매우 유익한 것이었다고 단언했다.

또 다른 텍사스 시청자는 그녀의 아홉 살 된 아들이 방송을 본 후 “이제부터 채식을 하겠어요!” 하고 선언했다고 알려주었다. 그후 며칠이 지나도록 아들은 새로 선택한 자비로운 식생활을 계속 지키고 있는데, 아버지가 육식 식당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가자고 권하자 이 어린아이는 더 이상 동물들의 살을 먹지 싶지 않다고 거절했다고 한다.

플로리다에 사는 아일랜드 가톨릭 신자라고 밝힌 마이크 몰라리(Mike Mullally)는 스승님의 그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모든 종교와 신념을 아우르는 스승님의 말씀 방식을 마음에 들어했다. 또 메릴랜드에 사는 제인(Jane)은 “정말 아름다운 방송이었어요. 모든 종교의 가르침을 강조하시더군요.” 하고 말하면서 유대인들도 채식을 많이 한다고 얘기했다.

데니스 닐(Denise Neal)이라는 노부인은 요양원에서 전화를 걸어왔는데, 우리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동안 스승님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나중에 그녀는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의상과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하신 스승님의 사진을 찾아보고선 이렇게 말했다. “정말 멋있어요! 스승님은 매우 현대적이고 웃도 전혀 후줄근하지 않았어요!” 스승님은 당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필요하다면 당신의 편안함과 취향까지 희생하시면서 모든 일을 하신다.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가 2천 년 전 모습 그대로 재림할 것이라고 여기는데, 한 전화 통화자는 예수가 여성의 몸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건 정말 가능성 있는 일이에요!” 그는 외쳤다. 마침 프로그램에서 스승님은 강연을 마칠 무렵 그의 의문에 답해 주셨다. “충분히 알아볼 수 있고 바른 문을 열어 예수를 안으로 들이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예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가 재림하는 때입니다. 그는 어떤 스승을 통해서도 옵니다. 예수를 수용할 수 있고 그의 크나큰 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스승이라면 그 역시 예수인 것입니다. 어쩌면 헤어스타일이 다르거나 하이힐을 신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는 예수입니다.” 이 시청자는 누군가가 이 질문을 해준 것에 기뻐했으며 또한 질문에 대한 스승님의 답변에도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방송이 나간 후 2주일이 지났지만 전화와 편지, 이메일을 통해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았다. 기억에 남는 한 전화 통화자는 뉴욕에 사는 메리 맥스(Mary Max)라는 할머니였다.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좀 딱딱하게 들렸다. “PAX 맞습니까? 거기가 의견을 받는 곳 맞습니까?” 우리 협회의 회원은 그녀의 목소리에 조금 움찔하면서 그녀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는지 걱정하며 대답했다. “예, 청하이 무상사의 가르침과 ‘진정한 영웅’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메리는 계속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좋아요. 할 말이 있습니다.” 동수는 숨을 죽이며 무슨 말이 나올지 전전긍긍했다. 노부인은 말을 이었다. “전에는 한 번도 방송을 보고 전화한 적이 없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수백 번이라도 재방송해야 합니다!” 그녀는 스승님과 프로그램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사를 보내며 매우 유익한 방송이었다고 외쳤다.

전세계 육류 가공 산업의 중심지로 알려진 시카고에서도 채식을 향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시카고

에서 채식 식당을 운영하는 한 동수는 방송이 나간 후 손님들이 놀랄 만큼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제는 평일 매상이 장사가 가장 잘 되는 토요일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적으로 신과 연결된 스승님의 큰 힘을 느낀 아리오와의 한 동양 여성은 즉시 입문을 신청했다.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그녀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보다 깊이 알기 위해 우리 협회의 웹사이트에 로그인했다. 20년 동안 채식을 했고 다른 명상법을 수행해 온 그녀는 이제 오직 스승님을 통해서만 자신의 지혜안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놀랍게도 캐나다 등 미국 외 지역에 사는 일부 시청자들도 위성 시스템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다. 멀리 몽골과 베네수엘라, 멕시코 사람들도 이때 일을 통해 인터넷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지 문의해 왔다.


시청자들 대부분이 이번 프로그램이 재방송될 것인지 물었고 비디오테이프 사본을 요청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시리즈의 일부인지, 그 다음 주에도 계속 방송되는지 물었다. 모두들 이 귀중한 기회를 통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알 수 있었다며 우리에게 스승님의 강연을 방송해 준 것에 대해 몇 번이나 감사와 찬사를 표했다. 스승님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고 인종과 종교, 문화, 구도자들의 선입견 등 모든 경계를 뚫고 미국 외만 지역까지 멀리멀리 퍼져 나갔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한편 우리의 사랑을 키우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양된 일에 참여할 소중한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끝없이 감사드린다. 포모사와 미국 전역의 사형사저들과 함께 조화롭고 단결된 마음으로 신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다. 스승님은 관음법문과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는지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셨다.

스승님이 출가하시기 전 쓰셨던 시 ‘부처의 슬픔’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세상을 구하는 일은 어려운 소명.
무릎 꿇어 신에 대한 믿음을 기구하며
신께 간청합니다, 당신의 피조물을 고쳐 주세요.

신의 아이들이며 최고의 행운아인 우리는 신의 은
총 속에 모두가 황금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무한한 사
랑으로 만물을 고치시는 스승님의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모든 존재에 대한 스승님의 무한한 자비심과 사
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후기: 한 시간 가량 되는 스승님의 가르침이 담긴 '진
정한 영웅'이 TV 매체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처음으
로 전해진 이후 미국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채식
을 하게 되었다. 이로써 그들은 수백만이 넘는 가족들
과 친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수천만 동물을 죽음의
고통에서 구해냈다. 스승님의 은총 속에 보다 많은 중
생들이 스승님의 가르침과 축복을 통해 고양되길 기
원한다. 

'진정한 영웅' 인터넷 시청 사이트:
www.GodsDirectContact.org
www.PeaceThruMusic.com



'진정한 영웅' 방송을 위해 스승님의 사진이 담긴 신문 광고가 미국 내 권위 있는 신문들에 게재되어
미국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미국

칭하이 무상사 최신 TV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성’이 3월 19일을 시작으로 매달 첫째, 셋째 일요일 오후 4시 30분(동부 시각)/ 3시 30분(중부 시각)에 미국 전국 방송사인 ‘인디펜던트 TV(i: Independent Television-이전의 PAX)’를 통해 정기적으로 방송될 것임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예술과 영성’은 공중과 방송과 케이블 방송, 위성 방송(DirecTV, Dish Network)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2006년 방송 일정

3월 19일	7월 2일	10월 15일
4월 2일	7월 16일	11월 5일
4월 16일	8월 6일	11월 19일
5월 7일	8월 20일	12월 4일
5월 21일	9월 3일	12월 18일
6월 4일	9월 17일	
6월 18일	10월 1일	

방송 시간:

공중과 방송과 케이블 방송 시청자:
동부 및 태평양 시각 오후 4시 30분
중부 및 산악 시각 오후 3시 30분

DirecTV와 Dish Network 시청자:

동부 시각 오후 4시 30분
산악 시각 오후 2시 30분
중부 시각 오후 3시 30분
태평양 시각 오후 1시 30분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에는 잊지 말고 스승님의 강연과 인도주의적 활동, 음악이 담긴 멋진 방송을 시청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peacethrumusic.com





스승님의 지시에 따른 보도 및 스승님의 평점

채식주의의 전도유망한 미래

미국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채식주의와 동물의 권리를 지지하는 유명인사

♥♥♥♥♥ 폴 매카트니(Paul McCartney)와 그의 딸이자 저명한 패션 디자이너인 스텔라 매카트니(Stella McCartney)는 영국에서 채식주의를 널리 알리는 것으로 유명한 대변자이다. 영국은 지난 10년 사이에 채식주의자의 수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났고 인구의 27%가 육식을 포기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매주 수천 명이 전통적인 육식 위주의 식사를 거부하고 그 대신 신선하고 맛있고 만족스럽고 건강에 이롭고 환경 친화적인 식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채식은 이와 같은 장점말고도 수많은 이로움이 있습니다... 가장 맛있고 가장 많은 화제가 되고 있으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새천년의 음식 추세인 채식을 즐겨보세요!”

~스텔라 매카트니

스텔라는 이 외, 사람들에게 합성섬유와 같은 비동물성 재료로 옷을 만들도록 장려하는 모피 반대 운동에도 크게 공헌하고 있다. (주 1)

♥♥♥♥♥ 2006년 오스카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리즈 위더스푼(Reese Witherspoon): 확실한 채식주의자이며 동물 권리 보호 단체인 ‘동물의 윤리적 대우를 지지하는 사람들(PETA)’의 열렬한 지지자.

♥♥♥♥♥ 2006년 오스카 최우수 남우주연상 후보인 조아퀸 피닉스(Joaquin Phoenix): 채식주의자이자 동물 권리 지지자.

♥♥♥♥♥ ‘슈퍼사이즈 미(Supersize Me)’: 햄버거 섭취의 위험성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영화. 2005년 오스카 최우수 다큐멘터리 부문에 지명됐으며 미국 사상 세 번째로 흥행한 다큐멘터리가 되었다.

♥♥♥♥♥ ‘패스트푸드 국가(Fast Food Nation)’: 2002년 육류 산업의 엄청난 악영향을 다룬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바탕으로 한 영화. 감독은 할리우드 채식주의자인 리처드 링클레이터(Richard Linklater).

♥♥♥♥♥ 미국 오하이오 주 국회의원인 데니스 쿠치니치(Dennis Kucinich)는 “비폭력을 사회 조직의 원칙으로 삼자”라는 운동과 평화부(Department of Peace) 설립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수 채식주의자이다. 미국 역사상 최연소 시장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한 후 15년간 은거하며 뉴멕시코 사막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 가장 청빈한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인 그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살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평화를 위한 노력에 헌신하고 있다.

유행을 주도하는 슈퍼마켓

♥♥♥♥♥ 월마트(Wal-mart): 미국에서 일주일에 1억 명의 고객이 찾는, 세계 최대의 소매업체. 최근에는 모든 사람들이 유기농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 식품의 공급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해 ‘유기농 식품은 부자들 전용’이라는 이미지를 깨트렸다! 월마트는 수년 동안 규모는 작지만 성장 추세인 유기농 시장을 눈여겨본 끝에 이 시장을 넓히기로 결정했다. (2006년 3월 6일자 야후 뉴스)

♥♥♥♥♥ 홀푸드(Whole Foods): 현재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슈퍼마켓 체인이자 세계 최대의 유기농 식품업체. 텍사스 출신의 채식주의자인 존 맥케이(John Mackey)에 의해 설립되었다. 동물 복지와 수행 단체에 많은 수입을 기부하는 것으로 유명한 맥케이는 공장식 사육의 두려운 진상에 대해 각 대학에서 강연하고 있다.

그는 최근 프린스턴 대학(Princeton University)에서 청중에게 말했다. “공장식 사육장은 30년 내에 불법화될 것입니다.” (주 2) ✨

주 1: <http://www.vegsoc.org/press/pressarchive/2002/pr1.html>

주 2: <http://observer.guardian.co.uk/foodmonthly/story/0,,1694454,00.html>

전세계 엘리트 채식주의자

채식은 자비심을 개발시키고 심신과 영혼을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운동선수, 배우, 음악가, 깨달은 스승, 문화가, 철학자, 정치가, 그리고 다른 분야의 저명인사들이 자비심과 도덕적 측면 등 다른 여러 가치에 기반해 채식을 하는 모범을 보였다.

운동선수

	알렉산더 다르가츠 (Alexander Dargatz)	독일 운동선수 2005년 보디빌딩 세계챔피언, 의사
	엘레나 발렌직 (Elena Walendzik)	2005년 독일 페더급 복싱 챔피 언
	칼 루이스 (Carl Lewis)	미국 육상 스타. 올림픽 9관왕
	에드윈 모세스 (Edwin C. Moses)	미국 육상 스타. 올림픽 2관왕
	르로이 버렐 (Leroy Burrell)	미국 육상 스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로버트 패리쉬 (Robert Parish)	미국 NBA 스타


문학가

	조지 웰즈 (Herbert George Wells)	영국의 저명한 공상과학 소설가
	샬리 (Percy Bysshe Shelley)	영국 낭만파 시인
	톨스토이 (Leo Tolstoy)	러시아 소설가. 평화주의자, 도덕 사상가
	오비드(Ovid)	고대 로마 시인


철학자

	다윈 (Charles Darwin)	영국 자연주의자. 지리학자, 진화론 창시자
	디오게네스 (Diogenes)	그리스 철학자. 우주론자
	소로 (Henry David Thoreau)	미국 작가. 시인, 철학자
	플라톤(Plato)	그리스 성인. 철학자
	피타고라스 (Pythagoras)	그리스 수학자, 철학자
	에머슨 (Ralph Waldo Emerson)	미국 작가. 시인, 철학자
	소크라테스 (Socrates)	그리스 성인. 철학자
	볼테르(Voltaire)	프랑스 계몽사상가. 철학자

음악가

	예후디 메뉴인 (Yehudi Menuhin)	미국계 영국인 오케스트라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
---	-----------------------------	-----------------------------------

패션 디자이너

	스텔라 맥카트니 (Stella McCartney)	저명한 영국 패션 디자이너, 폴 맥카트니의 딸
---	--------------------------------	------------------------------

연예인


	안나 파킨 (Anna Paquin)	캐나다 여배우. 오스카상 수상자
	캔디스 버겐 (Candice Bergen)	미국의 저명한 여배우
	크리스찬 베일 (Christian Bale)	홍행작 '배트맨 비긴즈'의 주연을 맡은 영국 배우
	대니 드비토 (Danny DeVito)	미국 배우, 제작자 겸 감독
	더스틴 호프만 (Dustin Hoffman)	미국 배우. 오스카상 두 번 수상, 에미상 및 골든 글로브상 수상
	조지 해리슨 (George Harrison)	영국 음악인, 비틀즈 멤버
	조아퀸 피닉스 (Joaquin Phoenix)	미국 배우. 2006년 오스카상 최우수 남우주연상 후보
	린다 블레이어 (Linda Blair)	미국 여배우. 오스카 최우수 여우조연상 후보, 골든 글로브 상 및 피플스 초이스상 수상. 동물권리 활동가
	린제이 와그너 (Lindsay Wagner)	유명한 미국 TV 여배우. 에미상 수차례 수상
	메리안 헤일리 모스 (Marian Heilely-Moss)	호평 받는 미국 여배우. 작가, 인도주의자
	마이클 제이 폭스 (Michael J. Fox)	캐나다 배우
	폴 매카트니 (Paul McCartney)	영국 음악인, 비틀즈 멤버
	폴 뉴먼 (Paul Newman)	미국 배우 겸 영화감독. 1986년 오스카 최우수 남우주 연상 수상
	리즈 위더스푼 (Reese Witherspoon)	미국 여배우. 2006년 오스카 최우수 여우주 연상 수상

	링고 스타 (Ringo Starr)	영국 음악인, 비틀즈 멤버
	스티브 마틴 (Steve Martin)	다재다능한 미국 연예인. 작가, 제작자, 대본작가, 배우
	토비 맥과이어 (Tobey Maguire)	미국 배우. '스파이더맨'을 비 롯해 많은 영화의 주연을 맡음


큰스승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영적 스승. 기독교 창시자
	석가모니불 (Shakyamuni Buddha)	영적 스승. 불교 창시자

사업가

	존 맥케이 (John Mackey)	세계 최대의 유기농 식품 연쇄 점인 미국 '홀푸드 (Whole Foods)' 설립자
---	------------------------	--

의학자

	벤자민 스포크 (Benjamin Spock)	미국 소아과 의사, 작가
---	-----------------------------	---------------

정치가

	코레타 스콧 킹 (Coretta Scott King)	미국 민권 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박사의 아내
	만모한 싱 (Manmohan Singh)	현임(제14대) 인도 수상. 가장 존경받는 인도 정치가로 알려짐
	압둘 칼람 박사 (Dr. APJ Abdul Kalam)	현임 인도 대통령. 저명한 과학자이자 기술자
	데니스 쿠치니치 (Dennis Kucinich)	미국 하원의원, 미국 국회의원
	마하트마 간디 (Mahatma Gandhi)	인도 정치 지도자, 인도주의자



전세계 채식 인사

철학자, 영적 지도자

- 제14대 달라이 라마(Dalai Lama)-티베트 영적 지도자
- 파라마한사 요가난다(Paramahansa Yogananda)
-인도 영적 스승
- 예수 그리스도와 초창기 기독교인
- 공자-중국 철학자
- 노자-중국 철학자
- 성 프란체스코(St. Francis of Assisi)
-이탈리아 기독교 성인
- 틱낫한(Thich Nhat Hanh)-어울락 스님/ 작가
- 마하리쉬 마헤쉬(Maharishi Mahesh)
-인도 작가, 철학자, 초월명상 지도자
- 조로아스터(Zoroaster)-이란 조로아스터교 창시자

...등등

작가, 예술가, 화가

-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이탈리아 화가
- 버나드 쇼(Geroge Bernard Shaw)-아일랜드 작가
- 존 로빈슨(John Robbins)-미국 작가
- 마크 트웨인(Mark Twain)-미국 작가
- 알버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
-독일 철학자, 의사, 음악가
- 플루타르크(Plutarch)-고대 그리스 작가

...등등

과학자, 발명가, 기술자

-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독일 과학자
- 토마스 에디슨(Thomas Edison)-미국 과학자, 발명가
- 아이작 뉴턴 경(Sir Isaac Newton)-영국 과학자
- 니콜라 테슬라(Nikola Tesla)-크로아티아 과학자, 발명가
- 헨리 포드(Henry Ford)-미국 포드 자동차사 설립자

...등등

정치가, 사회운동가

- 수잔 안소니(Susan B. Anthony)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 지도자
-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부부
-미국 인권 운동 지도자
- 야네즈 드르노프세크(Janez Drnovsek)-슬로베니아 대통령

...등등

배우, 영화 및 TV 스타

- 파멜라 앤더슨(Pamela Anderson)-미국 여배우
- 애슐리 주드(Ashley Judd)-미국 여배우

- 브리짓 바르도(Britte Bardot)-프랑스 여배우
- 존 클리즈(John Cleese)-영국 배우
- 데이비드 듀코브니(David Duchovny)-미국 배우
- 카메론 디아즈(Cameron Diaz)-미국 여배우
- 리처드 기어(Richard Gere)-미국 배우
- 대릴 한나(Daryl Hannah)-미국 여배우
- 케이티 홀즈(Katie Holmes)-미국 여배우
- 데미 무어(Demi Moore)-미국 여배우
- 이안 맥켈런(Ian McKellen)-영국 배우
- 브래드 피트(Brad Pitt)-미국 배우
- 기네스 펠트로(Gwyneth Paltrow)-미국 여배우
- 스티븐 시갈(Steven Seagal)-미국 배우
- 브룩 쉴즈(Brooke Shields)-미국 모델, 여배우
- 제리 사인펠트(Jerry Seinfeld)-미국 배우
- 나옴이 왓츠(Naomi Watts)-미국 여배우
- 케이트 윈슬렛(Kate Winslet)-영국 여배우

...등등

팝스타 및 음악인

- 조안 바에즈(Joan Baez)-미국 포크가수
- 밥 딜런(Bob Dylan)-미국 음악인
-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미국 팝스타
- 모리세이(Morrissey)-영국 가수
- 올리비아 뉴튼 존(Olivia Newton John)-영국계 호주 가수
- 시네드 오코너(Sinead O' Connor)-아일랜드 가수
- 핑크(Pink)-미국 가수

· 프린스(Prince)-미국 팝스타

· 저스틴 팀버레이크(Justin Timberlake)-미국 팝가수

· 티나 터너(Tina Turner)-미국 팝스타

· 샐리아 트웨인(Shania Twain)-캐나다 가수

· 바네사 윌리엄스(Vanessa Williams)-미국 팝가수

...등등

스포츠 인사

- 행크 아론(Hank Aaron)-미국 야구 홈런왕
- 빌리 진 킹(Billie Jean King)-미국 테니스 챔피언
- 빌 월튼(Bill Walton)-미국 농구선수

...등등

모델

- 크리스티 브링클리(Christie Brinkley)-미국 슈퍼모델
- 크리스티 킬링턴(Christie Turlington)-미국 슈퍼모델

...등등

명단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상주방 웹사이트 개설

채식은 이미 하나의 시류가 되었다! 이 아름다운 생활 방식을 접하는 데 보다 큰 도움을 주기 위해 관음법문 웹사이트는 최근 채식에 대한 최신 정보와 전세계 완전 채식 식당과 채식 제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무상주방 웹사이트’를 새로 개설했다. 이 웹에서는 식욕을 돋우는 주요리, 샐러드, 디저트, 케이크, 음료수, 수프 등 각국의 채식 요리법도 싣고 있으며 두부, 글루텐, 계란이 안 들어간 스위스를 등을 만드는 방법을 순서대로 보여 주는 비디오 요리 강습도 제공해서 건강하고 영양이 풍부한 채식 음식을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무상주방 웹에 실린 채식 정보와 요리법은 전세계 각국의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센터에서 취합한 것이다. 지역마다 구하기 쉬운 재료가 달라 다른 지역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별히 언어별로 요리법이 분류되어 있다. 그러므로 각자 친숙한 언어로 요리법을 배워 자기 고장의 재료로 맛있고 건강한 채식 음식을 만들면 된다. 사려 깊으신 스승님께서는 지역 센터 쪽에 나라별로 채식 제품을 구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라고 당부하셔서 채식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이 새로운 생활 방식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에 따라 채식을 시작해 보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웹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건강에 이롭고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채식은 고귀하고 평화로운 생활 방식을 증진하므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

무상주방 웹사이트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veg/alternativeliving/recipe/>

<http://www.Godsdirectcontact.org/veg/alternativeliving/recipe/>

<http://www.Godsdirectcontact.us/com/vegetarian/alternativeliving/recipe/>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veg/alternativeliving/recipe/>



고양이 구도자, 스승님을 만나다

샤냐 청 사저/ 포모사 타이베이 (원문 중국어)

어느 날 저녁, 나는 치과의사인 지양 선생과 함께 타이베이에 있는 '탕탕 채식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타이베이 국부 기념관으로 걸어갔다. 기념관 광장에 도착한 우리는 등받이가 없는 콘크리트 벤치에 앉았고 양쪽 벤치 끝에 각자 가져온 종이가방을 놓아두었다. 내 가방 속에는 지양 선생에게 빌려줬다 돌려 받은 스승님의 책과 비디오가 들어 있었고 지양 선생의 가방에는 내가 새로 빌려준 스승님의 책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는 당시 채식을 하거나 수행을 하고 싶어하진 않았지만 스승님과 스승님의 지혜에 큰 존경심을 품고 스승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했다. 또한 당시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나 역시 스승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데 아주 열심이었던 때문에 우리 대화는 곧바로 스승님에 대한 주제로 모아졌다. 그때 회백색의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갑자기 우리 벤치로 뛰어 올라오더니 지양 선생 옆에 있던 종이 가방을 앞발로 살짝 건드렸다. 지양 선생이 반사적으로 그 가방을 낚아채자 고양이는 놀라 벤치에서 뛰어내려 달아났다. 그러나 멀리 가지도 않고 5미터쯤 거리에 멈춰 땅에 웅크리고 앉은 채 우리의 다음 동작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그 고양이가 다음 행동을 취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선 지양 선생에게 말했다. “저 고양이가 다시 우리 쪽으로 다가오면 모르는 척 해주세요. 종이 가방을 건드리려 해도 그냥 놔주세요.” 그러자 그는 알았다고 했다.

과연 몇 분이 지나자 고양이는 다시 조심스럽게 벤치로 다가와 살짝 종이가방을 건드리곤 우리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온 몸을 가방에 붙이고 계속해서 몸을 비벼댔다.

고양이는 완전히 만족하고 무아지경에 빠진 듯이 보였다! 우리 셋은 그렇게 벤치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다. 우리끼리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고양이는 우리의 존재를 잊은 채 계속 종이가방에 몸을 비볐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꽤 늦은 시간이라서 떠날 채비를 해야 했다. 그렇지만 차

마 고양이에게 가방과 떨어져 스승님과 그만 헤어지라고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곳에 앉아 한껏 즐기고 있는 이 작은 동물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건 정말 큰 기쁨이자 축복이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이제는 그만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문득 고양이가 가방을 사이에 두고 스승님의 사진을 못 봤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내 옆에 있던, 스승님의 비디오와 책이 든 가방에서 스승님의 사진이 든 비디오테이프를 꺼내 고양이로부터 약 50센티미터 정도 앞에 놓아두었다. 그러자 그때까지 계속 그 종이 가방에 몸을 붙이고 있던 고양이는 갑자기 두 눈을 크게 뜨고 스승님의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래서 나는 그 테이프를 겨우 15센티미터 거리로 옮겨 주었다.

그 다음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그 작은 고양이는 뒷다리를 똑바로 세우고 일어서서 앞발을 구부린 채 사진에 귀를 가져다 대었다. 마음을 빼앗긴 듯 눈까지 감은 그 고요한 모습은 영락없이 삼매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내 눈앞에 있는 것은 그냥 동물이 아니라 신의 빛과 소리를 인지하는 신성한 영혼이었다! 이어서 고양이는 몇 초 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다시 눈을 크게 뜨고 수십 초 동안 스승님의 사진을 응시하고선 다시 눈을 감고 스승님의 은총을 즐겼다. 몇 차례 그렇게 되풀이하는 동안 고양이는 계속 뒷다리로 서 있었으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고양이와 헤어지고 광장 출구로 걸어가면서 지양 선생은 도저히 참지 못하겠는지 “믿을 수 없는 일이야! 믿을 수 없는 일이야!” 하고 외쳤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뒤돌아보니 작은 고양이 동수가 우리의 손에 들린 스승님의 책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이 고양이가 전생에 스승님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 기적과도 같은 만남은 스승님께서 1993년 11월 28일 국부 기념관에서 두 번째 강연을 하신 지 몇 달 뒤에 일어난 일이었다. 십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삼매에 빠진 듯한 고양이의 모습이 어제 있었던 일인 양 내 가슴 속에 생생하게 떠오른다.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었다. ✨

종족을 뛰어넘는 사랑의 세계

게리 사형과 카렌 사저/ 일본 도쿄

부부로 같이 오래 살수록 닮는다는 말이 있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개와 같은 애완동물을 고를 때 종종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과 닮은 동물을 고른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에 이어지는, 동물 세계에서 일어난 실화는 겉모습을 초월한 색다른 애정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먹잇감을 거절한 뱀



서로 친구가 된 것을 좋아하는 아오짱과 고향

[일본 도쿄] 도쿄 무츠고로 오코쿠(Mutsugoro Okoku) 동물원에 사는 2년 된 쥐뿔인 ‘아오짱’이 평소 먹던 냉동 쥐를 먹지 않자 담당 직원은 ‘고향(Gohan, 일본어로 ‘밥’이라는 뜻)’이라는 이름의 햄스터를 우리 안에 넣어 주었다. 원래 목적은 아오짱이 야생에서 찾을 수 있는 먹잇감과 유사한 식사를 제공하려는 것이었으나 아오짱은 고향을 먹잇감으로 보지 않았다. 담당 직원은 서로 어울릴 가망성이 전혀 없는 이 두 동물이 우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아오짱과 고향은 서로 알게 된 지 4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 도쿄 동물원의 같은 우리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서로 잘 지낼 뿐 아니라 두터운 애정을 과시하기도 한다. 관리원인 카즈야 야마모토 씨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여태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고향은 심지어 아오짱의 등에 올라가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사랑의 힘으로 이룩한 이 3.5인치의 햄스터와 1야드 길이의 뱀은 서로 다른 종의 동물인데도 믿어지지 않는 우정을 키워서 동물원의 명성을 더욱 드높이고 있다.

(관련 기사 참고 사이트: <http://www.msncb.msn.com/id/10903211/>)

외로운 두 마리 어린 동물의 우정

[미국 캘리포니아 산디에고] 2006년 2월 1일 CBS 뉴스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에서 구출된 개가 낳은 ‘카이로(Cairo)’라는 이름의 강아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디에고 동물원에 의해 ‘코자(Koza: 스와힐리어로 ‘명랑하다’는 뜻)라는 새끼사자의 친구로 ‘선택’되었다고 보도했다. 코자 어미의 분만 도중 다른 새끼가 죽는 등 자연 출산이 불가능해지자 의사들은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코



강아지와 ‘큰 고양이’ 코자가 함께 놀다.



자를 살려야 했다.

서로 어울리기 힘든 이 동물들은 “고양이와 개처럼 싸운다”라는 옛말을 불식시키고 새로운 사랑을 창조했다. 조련사인 하이드리 엔슬리(Heidi Ensley)는 “그들은 서로 엉겨 붙어서 함께 눕니다.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서로 자기 동료에게나 할 법한 일들을 같이 합니다.”라고 말한다. ✨

(관련 기사 참고 사이트: http://www.sandiegozoo.org/kids/animal_lion-puppy.html)



카이로와 코자가 '사나운 표정 짓기' 시합을 하고 있다.



장난감을 같이 가지고 노는 코자와 카이로.

꼬리가 짧은 좋은 친구들-보비와 바비



장님 고양이 보비와 그를 돌봐주는 개 친구 바비

[미국 뉴올리언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루이지애나를 휩쓸고 지나간 지 몇 달 후 집 없는 개와 고양이가 어느 날 갑자기 공사장에 나타났다. 공사장 인부는 꼬리가 짧은 이 동물들이 비쩍 마른 것을 보고는 음식을 주기 시작했다. 그는 고양이를 잡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개가 으르렁거렸다고 했다. 또 그는 자신이 둘을 떼어놓으려는 생각만 해도 개가 “짖어대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 인부는 곧 고양이와 개가 끈끈하게 이어진 친구라는 것을 깨달았다. 둘을 다 돌볼 수 없었던 그는 동물 보호단체인 ‘최고의 친구(Best Friends)’의 후원을 받는 한 동물보호소로 그들을 보냈다.

보호소 직원은 고양이가 이미 눈이 먼 상태라서 다정한 암개가 고양이의 보호자 겸 친구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보호소 소장은 그들의 짧은 꼬리를 보고 영감을 얻어 고양이에게 ‘보비’, 개에게 ‘바비’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보호소에서 서로 다른 종의 동물을 같이 키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 두 동물이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고양이 보비를 작은 우리에 든 채로 바비의 큰 개집 속에 들어가게 했다. ‘최고의 친구’는 이 둘을 떼어놓지 않고 함께 입양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관련 기사 참고 사이트: [//network.bestfriends.org/hurricane/news/1310.html](http://network.bestfriends.org/hurricane/news/1310.html)) ✨

위에 나온 이야기는 오늘날 세계 어디에서나 사랑의 힘이 점점 더 강해져 온갖 한계를 뛰어넘고 있음을 드러낸다. 심지어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동물들 간의 우정에도 한 몫 하고 있다. 뱀이 햄스터를 사랑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가능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스승님의 말씀처럼 말이다. “사실 우리가 개를 사랑할 수 있다면 소나 돼지는 왜 사랑할 수 없겠습니까? 그들 모두 똑같은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채식을 해야 하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즉 우리의 사랑을 모든 존재에게로 넓혀나가고 사랑의 마음을 확대해서 우리 자신을 온 우주로 확장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칭하이 무상사/ 1993. 12. 4. 오리건 포틀랜드, 비디오테이프 No. 399)

대한민국 서해안 폭설 구호 활동

광주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올 겨울 한국에 30년 만에 최악의 한파가 닥치고 사상 최대의 폭설이 내려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일부 지역은 기록적인 ‘눈 폭탄’에 가옥과 축사가 많이 무너졌고, 일부 마을은 고립되기도 했다.

한국 청하이 무상사 국제 협회 재난 구호 봉사단은 2006

년 1월 중순부터 피해 지역을 두루 답사하고 이재민에게 필요한 도움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피해 가구들이 정부에서 규정한 보상 조건 기준에 못 미쳐 직접 자비를 들여 수리해야 하는 형편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봉사단은 자비로 수리할 수 없는 영세민이나 장애인, 노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집을 수리해 주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1월 31일, 전국 센터에서 자원봉사자 60여 명이 전라북도 정읍에 집결했다.



이재민에 대한 구호 활동. 현수막에는 ‘2006년 2월 서해안 폭설 피해 복구 봉사 활동’이라고 적혀 있다.



폭설로 무너져 내린 지붕.

집 수리 활동

가옥 수리 활동은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정읍시와 고창군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세 조로 나뉘어 파견된 가옥 수리 팀은 집을 보수하는 한편 이재민들에게 생필품을 나눠주었다.

정읍시 정애마을은 한센 병력자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마을 전체가 눈의 폭격을 맞은 듯 했다. 피해 주민 중에서도 82세의 오규연 할아버지 내외는 가장 참혹한 처지였다. 재난 구호 봉사단이 집을 고쳐주겠다고 하자 할아버지 내외는 “하늘에서 온 천사 같다.”며 기뻐했다.

집이 거의 수리 불가능한 상태라서 봉사단은 아예 집을 새로 짓는 편이 더 빠르겠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다른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이 들었다. 복구하는 도중에도 다시 눈이 내리고 기온이 많이 떨어졌지만, 동수들은 무사히 일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 그 결과 깨끗한 새 집이 완성되었다. 79세 된 어옥순 할머니는 “집을 너무 잘 지어줬어요. 뭐라도 해주고 싶지



오규연 할아버지 부부의 수리 전후의 가옥 모습.



어려운 형편의 이재민 가정을 수리하고 있는 한국 동수들.

채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만 해줄 게 없어서 너무나 미안합니다.”라며 동수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봉사단은 피해를 입은 다른 많은 가옥들도 수리했다. 2월 3일에는 동수들의 봉사 활동 소식을 듣고 고창군청 김위성 도시과장이 주택계장과 함께 작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이재민을 돕는 활동에 감명을 받아 “정말로 좋은 일을 해주시는 게 고마워 시간을 내어 인사드리러 왔다.”고 말했다.

구호 활동을 하는 동안 일부 주민들은 우리 단체와 관음법문에 관심을 가졌으며, 그 중에는 채식에 큰 관심을 갖고 명상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동수들은 봉사 활동을 마친 뒤



파손이 심했던 두 집을 복구한 뒤 달아준 명패. “청하이 무상사의 사랑으로 거둬낸 보금자리. 2006년 2월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라고 적혀 있다.

채식 세미나

2월 15일, 동수들은 정애마을 주민들과 면사무소 직원들, 그리고 주변 마을 주민 100여명과 함께 채식주의와 ‘대안적인 삶’에 대해 안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서 2월 16일에는 충북 청원군 ‘조정 스파텔’에서 유기농 단체 ‘흙살림’ 수강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대안적인 삶-채식’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생태계와 환경에 대해 이미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어 환경 문제와 채식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고 진지한 질문이 오갔다. 강연 뒤에 이어진 채식 시식회에서는 호텔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다.

폭설 이재민 가옥 수리 봉사 활동과 채식 세미나 등 일련의 봉사 활동을 수행하면서, 동수들은 이웃의 고통이 바로 우리 자신의 고통임을 더욱 깊이 체감할 수 있었다. 동수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재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리는 한편, 그들의 고통과 슬픔이 봄 햇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눈처럼 신의 은총 속에 하루 속히 녹아 내리기를 기원했다. ✨



한국 『전북 연합신문』

2006년 2월 3일 (원문 한국어)

2006년 1월 31일 이평 면사무소에 집결한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은 2월 3일까지 이평과 산내, 산외를 비롯한 정읍지역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 활동을 펼쳤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행복이죠”

전국 채식협, 폭설 피해 집수리 봉사

최근 반가운 손님들이 2005년 12월에 내린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정읍 지역 피해 주민들을 찾았다.

전국채식협회 50여 명의 회원들이 폭설로 부서진 주택 수리 봉사를 위해 이들 주민들을 찾은 것이다.

지난달 31일 이평 면사무소에 집결한 회원들은 이 달 3일까지 이평과 산내, 산외를 비롯한 정읍 지역과 인근 고창군 지역에서 피해 농가 17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 활동을 펼 계획이다.

방문 첫날에는 20여 명으로 2개 조를 편성해 가정환경이 어려운 세 가구를 선정해 수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총 대상 가구 중 수리 대상이 정미한 가구에 대해서는 쌀이나 채식라면 등의 위문품으로 대체한다는 계획도 마련해 놓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폭설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이 같은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읍 박기수 기자)



지난달 31일 이평면사무소에 집결한 회원들은 이달 3일까지 이평과 산내, 산외를 비롯한 정읍지역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도움줄 수 있다는게 행복이죠”

전국채식협, 폭설피해 집수리 봉사

최근 반가운 손님들이 지난해 12월 내린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정읍지역 피해주민들을 찾았다.

전국채식협과 정읍지역 회원들이 폭설로 부서진 주택 수리를 위해 이들 주민들을 찾은 것.

지난달 31일 이평면사무소에 집결한 회원들은 이달 3일까지 이평과 산내, 산외를 비롯한 정읍지역과 인근 고창군 지역에서 17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를 펼칠 계획이다. 방문 첫날에는 20여명으로 두 개조를 편성해 가정환경이 어려운 3가구를 선정해 수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총대상 가구를 수리대상이 정미한 가구에 대해서는 쌀이나 채식라면 등의 위문품으로 대체한다는 계획도 마련해놓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폭설 피해를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이같은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수기자) /aspark@hannam.net



필리핀 『발리타(Balita) 일보』

2006년 3월 7일 (원문 필리핀어)

청하이 무상사, 레이테 산사태 이재민들에게 원조를 보낸다

포모사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지난 2월 17일 남레이테의 진사우공(Ginsaugon)에서 일어난 산사태 이재민들에게 원조를 보냈다.

전(前) 필리핀 복권 자선기구(Philippine Charity Sweepstakes Office; PCSO) 이사장인 마놀링 모라토(Manoling Morato) 씨는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대표가 자신에게 연락을 취해 세계를 경악시킨 이 재난에 대한 최신 정보를 구했다고 밝혔다.



모라토 이사장의 협조 속에 협회에서 파견한 전문가와 구조대원들은 즉시 재난지역에 들어갈 수 있었다.

협회의 자원봉사자들은 산사태 지역에 가장 먼저 도착해 최후까지 머물며 이재민들에게 쌀과 설탕, 우유, 소금, 가정용품 등을 직접 나누어주었다.

칭하이 무상사는 과거에도 피나투보 화산 폭발 이재민들을 도운 바 있다. 또한 이 영적 지도자는 홍수 피해를 입은 필리핀 국민과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등지의 쓰나미 이재민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보낸 적이 있다. 국제협회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파키스탄 지진 때도 인도주의적 활동을 펼쳤다.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인도주의적 활동으로 수백 만 명을 도와준 칭하이 무상사께서 필리핀 국민에게 보낸 이 특별한 관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모라토 씨는 인터뷰 중 이렇게 말했다. ✨

레이테를 구호하다-레이테 섬 재건 활동과 이재민을 돕기 위해 남부 레이테에 도착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 ➡



필리핀 『마닐라 불러틴(MANILA BULLETIN)』

2006년 3월 11일 (원문 영어)

포모사 단체가 레이테의 주민들을 돕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포모사 센터의 회원들은 남레이테 성의 세인트 버나드(Saint Bernard) 진사무공(Ginsaugon)의 산사태 이재민들을 도우러 온 단체 중 하나이다.

이 단체에 협조한 필리핀 복권 자선기구(PCSO)의 마누엘 모라토(Maunel Morato) 이사장은 포모사 센터 회원들과 협회의 필리핀 회원들이 산사태 이재민들에게 직접 구호물품을 전달했으며, 이 구호품에는 쌀, 설탕, 소금, 우유, 그리고 다른 생활 필수품들이 포함되었다고 말했다.

칭하이 무상사와 그녀의 국제협회는 전에 피나투보 화산 폭발 이재민, 바기오(Baguio) 시, 다구판(Dagupan) 시, 누에바 에시하(Nueva Ecija) 성의 지진 이재민, 그리고 기타 홍수와 가뭄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도와준 바 있다. ✨



다음 명단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는 훌륭한 나라에 있는 연락인과 연락처입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연락인이 없다면 우리 본부나 가장 가까운 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세계 연락처

P.O.Box 9, Hsihu, Miaoli 36899, Formosa, R.O.C.
P.O.Box 730247, San Jose, CA 95173-0247, U.S.A.

■ 아프리카 ■

- ★ **알제리:** 센터/ 244-923-338082/ luandacentre@yahoo.com
- ★ **베닌:** 센터/ 229-21-383982/ smbenin@yahoo.fr
- ★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 센터/ 226-50-341704/ smburburkina@yahoo.fr
- ★ **카메룬:** 두알라 센터/ 237-3-437232/ smcameroon@hotmail.com
- ★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센터/ 243-810583010/ blessedcongo@yahoo.fr
- ★ **가나:** 센터/ 233-277607-528/ smghanac@yahoo.com
- ★ **케냐:** 센터/ 254-726944744/ smoothgoing@gmail.com
- ★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Mr. Eric Razahidah/ 261-33-1115197/ hidahraza@yahoo.fr
-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566286
포트루이스/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tiut@intnet.mu
-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82570-4437/ ghvosloo@mweb.co.za
요하네스버그/ Ms. Khena Refiloe Truelove/ 27-83-5014853/ emzinikababa@yahoo.com
- ★ **로고:**
팔리메/ 센터/ 228-4-410-948
로메/ 센터/ 228-2-222-864/ smtogo@yahoo.com
로메/ Mr. David Chine/ 228-2-215-551
-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 아메리카 ■

-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regresandoacasa25@yahoo.com.ar
- ★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301758/ adamunh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 **브라질:**
벨ém/ Mr. Wei Cheng Wu/ 55-91-32234424, 55-91-32746611/ belemcenter@yahoo.com.br
고이아니아/ Mr. & Mrs. Erwin Madrid/ 55-62-3941-4510/ erwinserrano@terra.com.br
레시페/ 센터/ recifecenter@click21.com.br
레시페/ Ms. Maria Vasconcelos de oliveira/ 55-81-3328-9048/ mariaoliveira_cultural@click21.com.br
레시페/ Ms. Monica Tereza Nogueira/ 55-81-8742-3431, 55-81-3304-0452
상파울루/ 센터/ 55-11-5904-3083, 55-11-5579-1180/ br_center@yahoo.com.br
- ★ **캐나다:**
에드먼턴/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에드먼턴/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anh2sd@hotmail.com
런던/ 센터/ 1-519-933-7162/ uniself@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smchmontreal@sympatico.ca
몬트리올/ Ms. Euchariste Pierre/ 1-514-481-9816/ p_euchariste1@sympatico.ca
몬트리올/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thehungnguyen@sympatico.ca
오타와/ Mr. Jianbo Wu/ 1-613-829-5668/ jianbowu2002@yahoo.ca
오타와/ Ms. Jean Agnes Cambell/ 1-613-839-2931/ Jean.quanyin@gmail.com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토론토/ Ms. Diep Hoa/ 1-905-828-2279/ hoadiep0723@yahoo.com
토론토/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토론토/ 연락인 사무실/ torontocontact@yahoo.ca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2277@yahoo.ca
밴쿠버/ Ms. Sheila Coodin/ 1-604-580-4087/ qycontactperson@yahoo.ca
밴쿠버/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yentinguyen2002@yahoo.com
- ★ **칠레:**
라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1@yahoo.com
산티아고/ Mrs. Millaray Lizana Lizana/ 56-2-4544278/ millaraynoemi@yahoo.com
산티아고/ Mrs. Jacqueline Jeannette Barrientos Salas/ 56-2-3147786/ jacqueline.barrientos.salas@gmail.com
- ★ **콜롬비아:** 보고타 센터/ 57-1-2712861/ luzdelsonido@yahoo.com

★ 코스타리카:

- 산호세/ 센터/ 506-2200-753
- 산호세/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401@hotmail.com
-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 **멕시코:**
멕시코/ Ms. Sonia Valenzuela/ 52-928-317-8535/ valenzuela_sonia@hotmail.com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xcenter@gmail.com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al Suffo/ 52-8-18104-1604/ monterreycenter@yahoo.com.mx
- ★ **니카라과:**
마나agua/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pastora7iglesia@yahoo.com
- ★ **파나마:**
파나마/ 센터/ 507-236-7495
파나마/ Ms. Maritza E. R. de Leone/ 507-260-5021/ mrleone2@yahoo.com
- ★ **파라과이:**
아순시온/ Ms. Emilce Cespides Gimenez/ 595-21-523684/ ec_py2002@yahoo.com.ar
- ★ **페루:**
아레키파/ Mr. Julio Cardenas Pellizzari/ 51-54-453828/ qyarequipa@yahoo.com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center@yahoo.com
리마/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edyter@viabcp.com
리마/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u@yahoo.es
트루히요/ Mr. & Mrs. Raul Seugra Prado/ 51-44-221688/ rsp.trujillo@hotmail.com
- ★ **미국:**
* 에리조나: 센터/ 1-802-264-3480
* 에리조나: Mr. & Mrs. Kenny Ngo/ 1-802-404-5341/ kennynngoaz@hotmail.com
* 아칸사스: Mr. Robert Jeffreys/ 1-479-253-8287/ bodedj@cox.net
*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센터/ 1-951-674-7814
로스앤젤레스/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in54@hotmail.com
로스앤젤레스/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gmartin0999@hotmail.com
새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saccenter@gmail.com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샌디에이고/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샌프란시스코/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샌프란시스코/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sfcenter@hotmail.com
산호세/ Ms. Sophie Lapaire/ 1-650-464-8066/ Margorifico@yahoo.com
산호세/ Mr. Loc Petrus/ 1-510-813-2300/ petrul2k4@gmail.com
* 플로리다: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torah@ureach.com
* 플로리다:
케이프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239-458-2639/ CapeCoralCenter@Gmail.com
케이프코랄/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moonwater33957@yahoo.com
올랜드/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333-0178/ smch_orlando@yahoo.com
* 조지아: Mr. James Collins/ 1-770-294-1189/ georgiacenter@hotmail.com
* 조지아: Mr. Roddell Pleassants/ 1-678-429-7958
* 조지아: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 하와이: 센터/ 1-808-735-9180/ hawaiictr@hotmail.com
* 하와이: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88-6059/ Dorothysakata@aol.com
* 일리노이: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tran@yahoo.com
* 인디애나: Ms. Josephine Poelinitz/ 1-317-842-8119/ joslepoe@sbcglobal.net
* 캔터키:
프랭크포트/ 센터/ kycenter2000@yahoo.com
프랭크포트/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ujl.Nguyen@ky.gov
* 루이지애나: Mr. John L. Fontenot/ 1-504-914-3236/ jfontenot@hotmail.com
* 메릴랜드: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marylandcenter@yahoo.com
* 메사추세츠:

보스턴/ 센터/ 1-978-528-6113/ bostonctr17@yahoo.com
 보스턴/ Ms. Gan Mai-Ky/ 1-508-791-7316
 보스턴/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 미시간: Mr. Martin John White/ 1-734-327-9114/ mading02000@yahoo.com
 * 미네소타: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mn@yahoo.com
 * 미주리: 클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chen@umr.edu
 *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 뉴멕시코: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nawarskas@comcast.net
 * 뉴저지: 센터/ 1-973-209-1651/ NJCenter@gmail.com
 * 뉴저지: Mr. Hero Zhou/ 1-617-794-8282/ yb_zhou@hotmail.com
 * 뉴저지: Ms. Lynn McGee/ 1-513-377-2375/ lynn.mcgee@yahoo.com
 * 뉴저지: Ms. Bozena Chetnik/ 1-732-986-2907/ bozena_chetnik@yahoo.com
 * 뉴욕:
 뉴욕/ Mr. & Mrs. Zhijia Dong/ 1-718-567-0064/ dong@physics.columbia.edu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585-258-3961/ dcouch@rochester.rr.com
 * 노스캐롤라이나: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northcarolinacenter@hotmail.com
 * 오하이오:
 해밀턴/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ohiocenter@yahoo.com
 해밀턴/ Mr. Gilbert Rivera/ 1-513-226-3686/ wisdmeye@aol.com
 * 오클라호마: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yahoo.com
 * 오리건:
 포틀랜드/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egon_center90@yahoo.com
 포틀랜드/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youping320@yahoo.com
 * 펜실베이니아: Mr. & Mrs. Dlep Tam Nguyen/ 1-610-529-3114/ DlepAshleyPa@aol.com
 * 펜실베이니아: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 텍사스: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jdauw@yahoo.com
 오스틴/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tranduongdean@yahoo.com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달라스/ Mr. Tim Mecha/ 1-972-395-0225/ tmecha@comcast.net
 달라스/ Mr. Weldong Duan/ 1-972-517-5807/ water96@yahoo.com
 달라스/ Mr. Jimmy Nguyen/ 1-972-206-2042/ JimmyHNguyen@yahoo.com
 휴스턴/ 센터/ 1-281-955-5782
 휴스턴/ Ms. Carolyn Adamson/ 1-713-6852659/ cadamson@houston.rr.com
 휴스턴/ Mr. & Mrs. Charles Le Nguyen/ 1-713-922-1492/ cuc-le@houston.rr.com
 휴스턴/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yuan@houston.rr.com
 샌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2049/ lethong@hotmail.com
 * 버지니아: 센터/ 1-703-941-0067
 버지니아비치/ 센터/ 1-757-461-5531/ liem_je23502@yahoo.com
 버지니아비치/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anhhly@hotmail.com
 * 워싱턴: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aol.com
 시애틀/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 와이오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c@yahoo.com
 ★ 푸에르토리코:
 카이/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s/ 1-787-262-1874/ disnalda@caribe.net
 ■ 아시아 ■
 ★ 포르투갈:
 타이베이/ 센터/ 886-2-2706-6168/ tpe.light@msa.hinet.net
 타이베이/ Mr. & Mrs. Loh, Shih-Hung/ 886-2-27062628/ shloh@ndmctsg.edu.tw
 마카오/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마카오/ Mr. Chu, Chen Pel/ 886-37-724726
 가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33-1441
 ★ 홍콩:
 홍콩/ 센터/ 852-27495534
 홍콩/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sm_hongkong@yahoo.com
 ★ 인도: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2655-6741/ shiva@calvsnl.net.in
 ★ 인도네시아:
 발리/ 센터/ 62-361-231-040/ smch_ball@yahoo.com
 발리/ Mr. Agus Wibawa/ 62-81-855-8001/ wibawa001@yahoo.com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8/ smch-jkt@dnet.net.id
 자카르타/ Mr. Tai Eng Chew/ 62-21-6319061/ cte@envirotec.co.id
 자카르타/ Ms. Lie Ik Chin/ 62-21-6510715/ herlina@uei.com
 자카르타/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hai@cbn.net.id
 자카르타/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ketut@sinarmas.co.id
 밀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yudi_wartono@telkom.net
 밀랑/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메단/ Mrs. Merlinda Sjalluddin/ 62-61-4514656/ smch_medan@hotmail.com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ahimsasb@indosat.net.id
 수라바야/ Mr. Harry Limanto Liem/ 62-31-594-5868/harry_li@sby.dnet.net.id
 욕야카르타/ Mr. Augustinus Madyana Putra/ 62-274-411-701/ tadianingtyas@lycos.com
 ★ 이스라엘: Mr. Yaron Adari/ yadar@freeuk.com
 ★ 일본: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divinalv@mth.biglobe.ne.jp
 도쿄/ Ms. Yukiko Sugihara/ 81-90-6104-5770/ lotus@sky.plala.or.jp

도쿄/ Ms. Yoshie Takeda/ 81-90-3963-0755/ y-plus@f6.dion.ne.jp
 ★ 대한민국:
 출판사/ 042-543-9250/ chinghalkpt@yahoo.co.kr
 영동/ 센터/ 054-532-5821/ hounri21@yahoo.co.kr
 서울/ 센터/ 02-577-2158/ goldenseoul@yahoo.co.kr
 서울/ 유테인/ 02-795-3927
 부산/ 센터/ 051-334-9204~5/ chinghaibusan@hanmail.net
 부산/ 송호준/ 051-957-4552
 부산/ 황상원/ 051-805-7283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ldaeu@hanmail.net
 대구/ 김익현/ 053-633-3346
 대구/ 한선희/ 053-746-5338
 대구/ 차재현/ 053-856-3849
 대전/ 센터/ 042-625-4801/ smdaeejon@yahoo.co.kr
 대전/ 도봉희/ 042-471-0763/ dbhs44463@yahoo.co.kr
 전주/ 센터/ 063-274-7553/ shc5824@hanmail.net
 전주/ 신현창/ 063-254-5824
 광주/ 센터/ 062-525-7607
 광주/ 조명대/ 061-394-6552/ smgwangju@naver.com
 인천/ 센터/ 032-867-5351/ lightundinchon@yahoo.co.kr
 인천/ 이재돈/ 032-244-1250
 안동/ 김삼태/ 054-821-3043/ smandong@hanmail.net
 창원/ 센터/ 054-673-1399
 ★ 라오스:
 비엔티안/ Mr. Somboon Phetphommasouk/ 856-21-415-262/ sobopphet@yahoo.com
 ★ 마카오:
 마카오/ 센터/ 853-532231/ mcdlove@yahoo.com.hk
 마카오/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 말레이시아:
 알로르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조호르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supreme2@tm.net.my
 팔라렐루르/ 센터/ 60-3-21453904/ klsmch@yahoo.com
 팔라렐루르/ Mr. Phua Kai Liang/ 60-12-307 3002/ klnet23@yahoo.com
 페낭/ 센터/ 604-2285853/ pgsmch@pd.jaring.my
 페낭/ Mr. & Mrs. Lim Wah Soon/ 604-6437017
 ★ 몽골:
 울란바토르/ Ms. Erdenechimeg Baasandamba/ 976-11-310908/ baasandamba@yahoo.com
 바가부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74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ssaiaks@mptmail.net.mm
 ★ 네팔:
 카트만두/ 센터/ 977-1-4254-481/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카트만두/ Mr. Ajay Shrestha/ 977-1-4473-558/ ajaystha@hotmail.com
 포카라/ 센터/ 977-61-531643
 포카라/ Mr. Bishnu Neupane/ 977-984-60-36423/ neupanebishnu@hotmail.com
 ★ 필리핀: 마닐라 센터/ 63-917-474-9845/ manilach@hotmail.com
 ★ 싱가포르: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chinghai@singnet.com.sg
 싱가포르/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 스리랑카:
 콜롬보/ Mr. Lawrance Fernando/ 94-11-2412115/ samantha_nbt@zeynet.com
 ★ 태국:
 방콕/ 센터/ 662-674-2690/ bkko66@gmail.com
 방콕/ Ms. Laddawan Na Ranong/ 66-1-8690636, 66-2-5914571/ edasnlad@stou.ac.th
 차앙마이/ Ms. Sirivan Supatrchamnian/ 66-50-332136/ sirwanily@gmail.com
 콘렌/ 센터/ 66-43-378112
 송크라/ 센터/ 66-74-323694
 ■ 유럽 ■
 ★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43-699-12272892/ Chinghai@gmx.at
 비엔나/ Mr. Nguyen Van Dinh/ 43-2955-70535
 ★ 벨기에:
 브뤼셀/ Ms. Ann Goorts/ 32-472-670272/ qybelgium@yahoo.com
 브뤼셀/ Mr. Ellen De Maesschalk/ 32-486-242248
 ★ 불가리아: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8575358/ wwwruslan@yahoo.com
 플로브디프/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chinghaiplovdiv@yahoo.com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zeljko@mindless.com
 ★ 체코: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czech-center@spojenisbohem.cz
 프라하/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 덴마크: Mr. Thanh Nguyen/ 45-66-190459/ my@webspeed.dk
 ★ 핀란드:
 헬싱키/ Mr. Jussi Pohjolainen/ 358-40-548-3533/ jussi_pohjolainen@yahoo.com
 ★ 프랑스:
 알자스/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arclai@infonie.fr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똥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tich.hung@infonie.fr
 파리/ 센터/ 33-1-4300-6282
 파리/ Ms. Lancelot Isabelle/33-1-7069-3210/ ilancelot@celestialfamily.net
 ★ 독일:
 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Grigorli.Guinzbourg@gmx.de
 뒤스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203-4846374/ ngoc-thao.nguyen@gmx.dusseldorfcenter@hotmail.com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
 뮌헨/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i@aol.com
 뮌헨/ Ms. Kang Cheng/ 49-89-3616347/ lovesource8@yahoo.de
 ★ 그리스:
 아테네/ Ms.Vicky Chrisikou/ 30-210-8022009, 30-6944-470094/ luckychriskou@yahoo.gr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Mr. kamlung cheng/ 31-647838638/kamlung27@hotmail.com
 ★ 헝가리: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gmail.com
 부다페스트/ Mr. Lehel Csaba/ 36-96-2400-259/ clehel@gmail.com
 부다페스트/ Gabor Soha/ 36-20-221-5040/ gabor.soha@gmail.com
 ★ 이탈리아:
 페사카렐/ Bettina ADANK/ 39-085-454-9184/ bettina.adank@fastwebnet.it
 ★ 아일랜드: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dublinquanyin@yahoo.co.uk
 ★ 노르웨이:
 오슬로/ Ms. Marte Hagen/47-64978762, 47-92829803/ marte.hagen@gmail.com
 ★ 폴란드: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k/ 48-91-4874953/ gingal@wp.pl
 바르샤바/ Ms. Elzbieta Ukleja/ 48-22-8367814/ elzbieta_q1@yahoo.com
 ★ 포르투갈:
 레이리아/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lcoa_center@hotmail.com
 ★ 루마니아: 부차레스트/ 센터/ bucharestq@yahoo.com
 ★ 러시아: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boulgakov@tri-el.ru
 ★ 슬로베니아:
 루블랴나/ 센터/ 386-1-5182542/ quanyin@siol.net
 루블랴나/ Mr. Janez Pavlovic/ 386-41-320-268/ janez.pavlovic@siol.net
 마리보/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rast05alfonz@yahoo.com
 ★ 스페인:
 마드리드/ Ms. Lidia Kong/34-91-547-0366
 마드리드/ Mr. Claudio Octavio Silva Zuniga/ 34-667090831/ claudiოსilvachile@yahoo.es
 달라가/ Mr. Wang Ya-King/ 34-95-235-1521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발렌시아/ Mr. Yu Xi-Qi/ 34-96-3301778/ valenciachinghai@yahoo.es

★ 스웨덴:
 앙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Angelholmswe@yahoo.com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smchsweden@yahoo.se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 스위스: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lo.org
 제네바/ Ms. Klein Ursula/ 41-22-369-1550/ uklein@tiscali.ch
 ★ 영국 연방:
 * 잉글랜드:
 임스워치/ Mr. Shahid Mahmood/ 44-1473-436961/ shahidocean@hotmail.com
 런던/ 센터/ 44-2088-419866/ pni@matters19.freemove.co.uk
 런던/ Mr. Nicholas Gardiner/ 44-2089-773647
 런던/ Mrs. C Y Man/ 44-1895-254521/ chuk_yee_man@hotmail.com
 스톡홀름/ Mrs. Janet Weller/ 44-1782-866489/ j.weller4@ntlworld.com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stmchw@hotmai.com
 *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2002@yahoo.co.uk
 ■ 오세아니아 ■
 ★ 호주:
 애들레이드/ Mr. Leon Liansavanh/ 61-8-8332-6192/ leonadelalde@hotmail.com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_en@yahoo.com.au
 브리즈번/ Mr. Gerry Blisshop/ 61-7-3901-6235
 브리즈번/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tling_briscentre@yahoo.com.au
 브리즈번/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dlch136@hotmail.com
 캔버라/ Mr. Hoang Khanh / 61-2-6259-1993/ smcanberra@hotmail.com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멜버른/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rosrobbery@aol.com
 멜버른/ Mr. Phong Minh Tan Do/ 61-3-9850-2553/ phongloveme@yahoo.com
 멜버른/ Mr. Alan Khor/ 61-3-9857-4239/ ckhor@netspace.net.au
 퍼스/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inet.net.au
 퍼스/ Mr. Ly Van Tri/ 61-8-9242-2848
 시드니/ Mr. Eino Laidsaar/ 61-2-65504455/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시드니/ Mr. Ly An Thanh/ 61-2-9823-8223/ anbinh_sydney@yahoo.com.au
 태즈메이니아/ Mr. Ramond Dix on/ 61-3-62314420/ ray_jule@bigpond.net.au
 ★ 뉴질랜드:
 오클랜드/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xtra.co.nz
 오클랜드/ Mr. Peter Morrin/ 64-9-579-2452/ ptr@hug.co.nz
 오클랜드/ Mr. Chang Jen-Hor/ 64-9-2749298/ changjenhor@yahoo.com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nzchchsmch@yahoo.com.au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64-211399934/ hamnzcont@yahoo.co.nz
 넬슨/ Ms. Sharlene Lee/ 64-3-539-1313/ shale@hug.co.nz

* 전 세계 연락처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연락처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 www.Godsdirectcontact.org.tw/eng/cp/index.htm](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cp/index.htm)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 비디오테이프

이메일: TV@Godsdirectcontact.org

팩스: 1-413-751-0848 (미국)

SM 경서팀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9-883-778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mail.sm-cj.com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16

<http://www.sm-cj.com>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포모사 타이베이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 2-8787-3935

팩스: (886) 2-8787-0873

대한민국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

전화: 042-543-9250

팩스: 042-543-9258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대한민국 청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hounri21@yahoo.co.kr

전화: 054-532-5821

팩스: 054-532-5822

(천의, SM 보석, 해피요기, 만세등, 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천국의 새

작사: 칭하이 무상사 (원문 영어)
작곡 및 노래: 대니 부



오, 장엄한 천국의 새여!
그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불어오지 않는 한 줄기 바람을 타고...
무지개 너머 이름 없는 곳으로?

태양 없는 태양을 그대 알고 있구나
모래 없는 해변에 그대의 발은 내려앉으리니
그대의 목마름이 그대를 채워주리
그대의 목마름이 그대를 채워주리
그 가장 달콤한 감로수로
그대 가슴이 만족할 때까지

(간주)

오, 천국의 새여!
고향으로 훨훨 날아가거라!
펼쳐진 한 폭의 자줏빛 구름 위로
그대 날아오르라...

가볍디가벼운 날개,
부드럽디부드러운 가슴으로
현 없이 울리는 하프를 따라
그대 내려앉는구나!
무한한 시간의 나라에
영원히 잔잔한 강물에 몸을 적시고
영원한 젊음의 별판에서 뛰놀기 위해
그리고 음악 같은 신의 목소리를 듣게 되나니

오, 천국의 새여!
그대 가장 사랑 받는 이를 알고 있으니,
그대 자비로운 그분을 알고 있구나

권능을 부여받은 그 날개 위에 나를 태워주오
나도 꼭 가야만 하니까
고향으로 가야만 하니까...
나 고향으로 가야만 한다네...
멀고 먼 포근한 고향!
고향, 천상의 고향!



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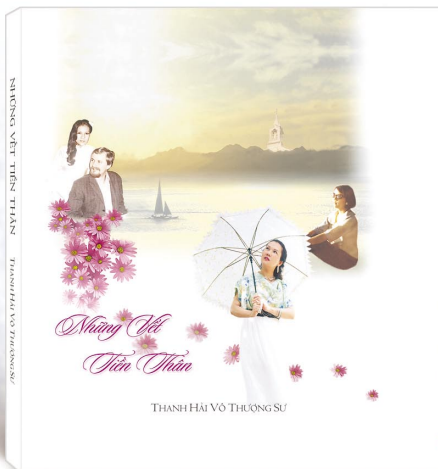
전생의 발자취 (어울락어판)

청하이 무상사가 히말라야로 깨달음을 구하러 가기 전 창작한 시를 엮은 『전생의 발자취』는 사랑과 전쟁이 교차하는 부침 많고 덧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 비롭고 고귀한 한 영혼의 내면을 투영하고 있다. 또한 이 시집에는 저자가 일상 생활 중 겪은 가슴 절절한 투쟁과 희망, 분노, 아름다움의 순간들이 비범하게 묘사되어 있다.

비단 같은 금빛 달빛이 되어
하늘 끝까지 사랑하는 그대를 따르고 싶어라

‘사랑의 노래 2’에서 발췌

『전생의 발자취』를 읽다 보면 청하이 무상사의 시에서 발산되는
눈부신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영원한 행복과 해탈로 가는 길에서
찬란한 영혼과 다시 연결될 것이다.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헝가리 선 행사 중 어느 낭만적인 겨울 밤, 스승님은 사랑이 넘쳐흐르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하시며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음악의 밤을 선사하셨다.

세월이 가도 사랑을 받는 사랑 노래가 스승님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통해 대기를 채우면서 슬프고, 애절하고, 섬세하고, 씩씩하게 분위기를 바꿔나갔다. 그 중에는 이전에 출간된 적이 없는 노래들도 있었다. 음표 하나하나에서 스승님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이 흘러나오고 노래 구절구절마다 세세생생 우리에게 대한 심오한 사랑이 담겨 있다. 이러한 가운데 꿈인 듯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 신성한 사랑에 포근히 감싸이게 된다. 마치 다음 가사처럼 말이다. “꿈속에서 당신은 내게로 와서 영원히 사랑을 속삭였지요, 영원히 사랑을 속삭였지요...”

681 (영어+22개 국어 자막)

어린이의 마음

태국 국제 선육

1999년 12월 27일/ 29일



761 (영어와 어울락 노래+ 24개 국어 자막)

사랑의 노래

2005년 2월 28일 깊은 밤/ 헝가리 선 행사



내용 요약:

어떻게 하면 삼매에 드는가? 때로 일에 전념하다 보면 주의력이 그 일로 돌려지는데, 지혜안으로 다시 주의력을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명상하는 동안 고양이, 개 등 애완동물을 옆에 뒀도 되는가? 어쩌서 입문한 뒤에 8대 조상들을 천도시킬 수 있는가? 스승님께서는 이에 대해 심리학, 혈연관계, DNA 연결, 영성적 측면을 포괄해 명쾌하게 설명해 주신다. 또한 비판적인 마음이 없는 어린이의 순진함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명상을 반 정도는 한 것이라고 하신다.

스승님의 출판물을 주문하려면 <http://www.thecelestialshop.com>을 방문하시거나 다음 주소로 연락하세요: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Taipei, Formosa
Tel: (886) 2-87873935 Fax: (886) 2-87870873 E-mail: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대만 우체국 송금계좌 번호: 19259438(포모사 내 주문시)
수취인: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최신 간행물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어)/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